

세계로
응미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2023. 7.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13
제1절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3
1)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목적	15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16
1)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16
2) 은둔형 외톨이와 연관된 용어 정의	18
제3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사건 및 사고 사례	21
1)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사례	21
2) 범죄와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사례	22

제4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23
1) 국내 지자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23
2) 국내 민간 영역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26
3) 국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28
제5절 결론	32
제3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33
제1절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개요	35
제2절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36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 및 사회·경제적 상황	36
2)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40
3)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42
4)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나이 간의 관계	60
5) 은둔기간 및 은둔시작나이 영향요인	61
제3절 결론	63
제4장 은둔형 외톨이 욕구조사 및 심층면접	67
제1절 심층면접 개요	69
1) 조사대상	69
2) 조사목적	70



CONTENTS

3) 조사방법	71
4) 조사내용	72
제2절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파악 및 분석	73
1) 은둔 당사자 심층면접 참여자	73
2) 은둔 당사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74
제3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대상자 심층면접	78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전문가 집단면접	84
1) 참여 전문가	84
2) 전문가 회의(FGI) 내용	85
제5절 결론	90
제5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	93
제1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95
1) 전라남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은둔형 외톨이 특성(H.O.L.O.)	95
2)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추진체계(S.T.O.P.)	97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101
1) 미시체계: 개인 상담, 예방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101
2) 중시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및 플랫폼	120
3) 외체계: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126
4) 거시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9

제6장 '24년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163
사업 1. 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정책 1-2)	165
사업 2. 은둔서포터즈 양성(정책 1-5)	166
사업 3. 사례발굴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정책 4-1)	167
사업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구축(정책 4-5)	168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홈페이지 구축(정책 4-9)	169
사업 6. 마을지킴이 프로그램(정책 4-11)	170
제7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171
◎ 참고문헌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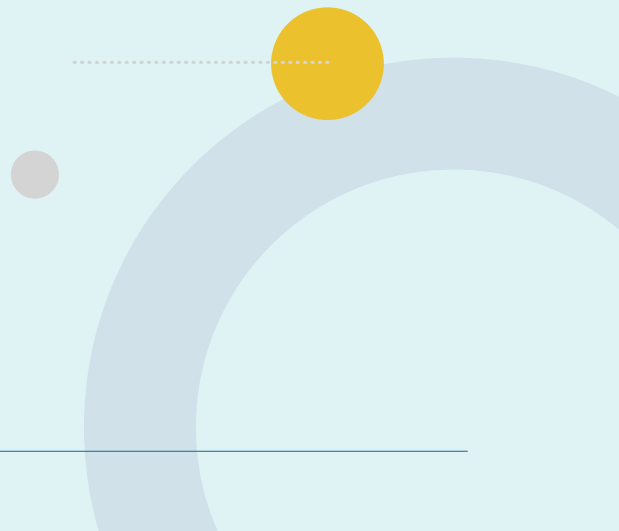




표 차례

〈표 Ⅱ-1〉 히키코모리 정의·····	18
〈표 Ⅱ-2〉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24
〈표 Ⅱ-3〉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내용·····	25
〈표 Ⅲ-1〉 실태분석 주요 내용·····	35
〈표 Ⅲ-2〉 은둔형 외톨이 인구학적 분포 및 가구 특성·····	37
〈표 Ⅲ-3〉 전라남도 지역별 은둔형 외톨이 현황·····	39
〈표 Ⅲ-4〉 은둔형 외톨이 특성·····	41
〈표 Ⅲ-5〉 성별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43
〈표 Ⅲ-6〉 연령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45
〈표 Ⅲ-7〉 학력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47
〈표 Ⅲ-8〉 가구원 수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49
〈표 Ⅲ-9〉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51
〈표 Ⅲ-10〉 생계책임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53
〈표 Ⅲ-11〉 정부지원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55
〈표 Ⅲ-12〉 연령에 따른 특성 차이 분석·····	56
〈표 Ⅲ-13〉 가구원 수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57
〈표 Ⅲ-14〉 독거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58

〈표 Ⅲ-15〉 정부지원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59
〈표 Ⅲ-16〉 상관관계분석	60
〈표 Ⅲ-17〉 은둔생활기간 영향요인	61
〈표 Ⅲ-18〉 은둔시작나이 영향요인	62
〈표 Ⅳ-1〉 심층면접 참여자	73
〈표 Ⅳ-2〉 참여 전문가 정보	84

그림 차례

[그림 Ⅱ-1]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26
[그림 Ⅱ-2]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27
[그림 Ⅱ-3]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체제도	29
[그림 Ⅱ-4] 아동·청년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체제	30
[그림 V-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추진체계	97
[그림 V-2]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정책 네트워크	121
[그림 V-3]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버넌스	14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은둔형 외톨이 증가와 특성 변화

- 은둔형 외톨이는 2000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음(Lee, Si-hyung 외, 2000; 정근하, 노영희, 2022)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없으나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Korean Youth Counseling, 2005) 한 바 있음 이후 청년층만 전국에 약 61만 명이 은둔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23)
- 과거의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집에서 지내며, 사회적 철수와 관련된 심각한 수준의 기능 저하를 보이는 자'를 이르는 말로 정의(Kato, Kanba, & Teo (2019) 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와의 완전 단절이 아닌 온라인 활동은 활발한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나고 있음
 - 일본 큐슈대 의대,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정신과학과, 포틀랜드 주립대 보건대 공동 연구팀은 은둔형 외톨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정립(Kato, Kanba, & Teo, 2020)하고, 디지털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대인 접촉이 줄어드는 것도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강화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함
 -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은 1) 집 안팎에서 지낸 시간의 비율 2) 대인관계 회피 정도 3) 정신적 고통 여부 4) 우울증, 양극성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과질환 여부 4가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인터넷 중독(조영미, 김동민, 2012; Stip, Thibault *et al.*, 2016), 게임 중독(김효순 외, 2016; Stavropoulos *et al.*, 2019), 스마트폰 중독(Tateno *et al.*, 2019), 인터넷 쇼핑중독(KBS 뉴스, 2010.05.25) 등의 문제가 규명되고 있으며, 주로 일상에서 유튜브 및 OTT 시청,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의 온라인에 의존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고됨(국제신문, 2022. 9. 23.)

■ 은둔형 외톨이 문제 발생 및 지원·보호정책 부족

- 은둔형 외톨이들의 심리는 위태로운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부산복지개발원, 2023),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인격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동반될 위험이 있음
- 은둔형 외톨이는 불만 및 분노가 타인이 아닌 자기 내부로 향하고 있어 그 자체가 질병이나 질환은 아님에도 잠재적 범죄자, 게으름뱅이, 인생의 탈락자 등으로 인식되어 사회와 점점 더 단절되고 가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함(김성욱, 2019)
- 은둔의 장기화는 가정 붕괴, 실업문제, 고독사,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국가적 손실은 증가시킴
 - 우리 사회에서 지불하는 고립의 총비용은 경제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은둔 시작 나이를 만 19세부터로 가정하고,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사망 시점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지원액과 경제활동으로 인한 조세 기여분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1인당 약 15억 원임(김성아, 2022)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여왔음
 - 2022년 10월 현재 정부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과 대응체계는 전무한 상황이며, 기존 법령을 근거로 일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임(서울시복지재단, 2022)
- 이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장기화된 은둔을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각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필요

- 그동안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일부 민간단체(NGO)를 중심으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임
 - 이러한 이유로 부처별 지원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으로 운영되었고 다른 특성을 가진 정책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면서 정작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효과에는 미비하였음(서울시복지재단, 2022)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취약 청년 지원을 위한 유형에 은둔형 청년이 포함하여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지자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는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산어촌, 그리고 섬 지역이 섞여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이를 고려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전남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5%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요는 타 시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재정 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자원조달의 어려움이 존재
-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전라 남도에 거주 중인 은둔형 외톨이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제도를 탐색하여 은둔을 예방하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기반한 정책환경을 검토 및 분석하여 부적절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및 비효율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 전라남도에 거주중인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원정책 수립과 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별 차이와 특성별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의 차이,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은둔수준과 은둔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근거 확보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아픔을 공감하고 은둔 경험의 이해

- 은둔형 외톨이의 다양한 은둔 배경을 확인하고 은둔생활로 인한 경험과 문제를 파악하여 발생 원인의 경감방안 마련의 근거자료 확보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생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경험한 편견과 차별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24년~'28년) 수립을 위한 근거 확보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이에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책 지원 및 개입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모색

- 전라남도에 거주 중인 은둔형 외톨이가 스스로 은둔을 극복할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 하는데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
-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재진입 및 복귀하는데 요구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직접적 범위: 2022년 ~ 2023년(2개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복지 욕구조사 실태 범위
- 간접적 범위: 2024년 ~ 2028년(5개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제언 범위
 - ※ 2024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섬 지역 포함)

■ 대상적 범위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연령 무관 및 정신장애 진단자 제외)
- 기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

■ 내용적 범위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타 지역 사례 및 관련 정책 비교 분석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 및 사회·경제적 상황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이유, 은둔시작 시기 특성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나이 간의 상관 및 영향
- 은둔형 외톨이 욕구조사 및 심층면접
 -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파악 및 분석
 -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대상자 심층면접
 -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전문가 집단면접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24년~'28년) 수립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제시
 -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수립
 -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모델 개발

2) 연구방법

■ 문헌·사례연구: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은둔형 외톨이 개념 검토
-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건 및 사고 사례 분석
-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분석

■ 실태조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 조사기간: 2022. 6. 1.(수) ~ 6. 30.(목), 1개월 간
- 조사기간: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64세 은둔형 외톨이
 - ※ 은둔 상태가 6개월 이상이고, 사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 조사내용: 전라남도 내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은둔 특성
 - ※ 성별, 최종학력, 가구원 수, 거주 유형, 생계 책임자, 정부지원 여부, 은둔 특성(외출 정도, 은둔기간, 은둔 계기, 은둔 시작 시기) 11문항
- 조사방법: 시·군(읍·면·동)에서 유선 또는 방문 조사
- 조사성과: 전라남도 내 은둔형 외톨이 243명 발굴
- 분석기간: 2023. 2. 1.(수) ~ 3. 30.(목), 2개월 간

■ 심층면접: 은둔형 외톨이 욕구조사 및 심층면접

- 조사 대상: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라남도에 거주 중인 은둔형 외톨이
- 제외 대상: 지적 및 정신 장애인
- 설문 구성
 -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파악 및 분석(은둔생활을 하게 된 시점과 계기, 은둔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은둔생활이 지속된 기간, 은둔생활 이전의 삶)

-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대상자 심층면접(은둔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은둔 생활 극복을 위한 복지 욕구)

○ 조사 방법

- 심층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후 대상자의 신상에 관련된 질문으로 라포를 형성함
-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 또한 면접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면접이 중단될 수 있음도 사전에 고지하고 자필서명으로 동의를 받았음
- 대상자의 신상에 관련된 질문과 평소 외출 정도, 은둔하게 된 계기, 은둔 시기, 일상생활 활동,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및 대인관계,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일, 심리정서적 문제와 신체 건강상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연구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한 주요 질문은 연구 경험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실태, 원인, 필요한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비구조화된 질문을 주로 다룸

○ 자료 처리 및 분석

-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조사자가 면접 후 녹취파일 및 대화 중에 작성하였음
-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가 있는 진술들을 찾고 그 가운데서 유사한 진술들을 모아 범주화함. 또한, 유사성을 고려하여 상위범주로 유형화함
- 연구진은 비심판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호화함

제2장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제1절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제3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사건 및 사고 사례

제4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제5절 결론



S.T.O.P.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2장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제1절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과 사회적 관심

-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실업률의 증가 등과 함께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출현하기 시작
 -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출현했을 당시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기
 -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기준서 'DSM-5' 개정판에 일본어 발음 그대로 'Hikikomori(히키코모리)' 사례가 기술
- 2000년대 초반에 들면서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와 실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 고조
 - 2005년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그 실태가 방영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
 - 2022년 KBS <시사기획 창>과 SBS <SBS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새로운 청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방영함

■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집에서 오랜 시간 혼자 지내게 된 이들을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사례가 늘고 있음
- 2020년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제한,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
- 초고속인터넷망, 스마트폰의 보급,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및 음식배달앱의 쉬운 사용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급증과도 관련이 있음(이명진, 2019, p.16)

■ 은둔형 외톨이 현황

-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관한 국내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없음
- 2017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바로는 19~39세 중 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약 0.9% 정도이며, 약 13만 5천 명으로 추산함
- 2018년 윤일규 국회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40대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를 21만 명으로 추정함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만 18~34세 3,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은둔 청년을 3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청년인구의 3.4% 정도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함
- 광주광역시 2020년 국내 최초로 은둔생활 당사자 237명 및 가족 112명(총 349명)을 대상으로 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산광역시도 2021년 은둔생활 당사자 597명 및 가족 213명(총 810명)을 대상으로 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1인 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는 고독사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쉽지 않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의 생애 경제적 비용을 1인당 약 15억 원으로 추산하였고(김성아 외, 2022), 이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추산치에 대입시키면 약 555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최근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2022)' 수행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2~2026)수립 및 지원센터 설립운영(2022)
 - 서울특별시 2023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 국내 은둔형 외톨이 규모와 증가세, 은둔형 외톨이가 초래하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 정확한 통계자료 및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전라남도는 2021년 9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과정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방안 구축이 필요함
- 「전라남도 은둔이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은둔형 외톨이 심층면접 및 전문가 집단면접,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의 목적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에 기반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제시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전체 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일괄된 포괄적인 지원 체제와 네트워크 구축 마련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전략 추진 등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1)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 은둔형 외톨이를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사회적, 행동적 특징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규정하고 있음
 - 3개월 이상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음
 - 은둔 기간이 너무 길면 은둔을 고착시키고 너무 짧은 기간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 까지 포함할 수 있어, 3개월이라는 기준점을 정함
 - 일부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함
 - 학업 및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학업, 사회 참여의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음
 - 학업 유지를 어려워하고, 다른 직업교육을 원치 않으며 흥미 또한 보이지 않음
 - 친구가 한 명이거나 전혀 없음
 - 친구를 사귀고 싶고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며 생활하고 싶지만 개인적 성향과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거나 교류하는 사람이 없음
 - 집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함
 - 집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모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생산적인 활동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경우 이에 해당함
 -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대부분 집 안에서 지내고 있으며,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 하거나, 취미생활을 위해 가끔 외출하기도 함
 -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해 불안 또는 초조함을 느낌
 - 은둔 상태에 있으면서 무력감이 불안, 초조함을 나타내며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는 제외됨
 - 지적장애, 우울증, 대인공포,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 자체가 원인이 되어 은둔생활을 하게 됨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립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0.10.29.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 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을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7.14.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0.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 정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1.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

2) 은둔형 외톨이와 연관된 용어 정의

■ 히키코모리

- 히키코모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하였으며, 그 이전의 ‘부등교’, ‘이지메’, ‘니트’ 등 사회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개념들과의 연관을 맺으며 구축되어온 개념임
- 어원은 ‘히키코모루(引き籠もる)’라는 동사가 명사화 된 단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인적이 드문 산 같은 곳에서 몰래 숨어서 지내는 것’에서 유래
- 2010년 이후부터는 차츰 내각부(内閣府)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정의가 정착되어 갔는데,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대부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정의하되,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혹은 음성(陰性) 증상에 바탕을 둔 히키코모리 상태와는 다른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확정진단이 이루어지기 전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이라 기술하고 있음

<표 II-1> 히키코모리 정의

자 료	정 의
斎藤環 (1998)	20대 후반까지 문제화되며, 6개월 이상 자택에서 히키코모리 상태가 지속되며, 기타 정신장애가 그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하기 힘든 상태
厚生労働省 (2003)	(1) 자택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2) 취학·취업 등 사회참가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며 (3) 이상의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태 (4) 다만, 조현병 등 정신병 영역의 질환 혹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IQ55-60)인 자는 제외하며 (5) 취학,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이외의 타자(친구 등)와 친밀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자는 제외함
小山明日香 등 (2006)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으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어 자택에 히키코모리 사태로 있는’ 상태로 ‘때때로는 장보기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포함함

자 료	정 의
東京都 (2008)	<p>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가가 좁아지며 취업이나 취학 등 자택 이외 생활 공간을 장기간에 걸쳐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대략 15세부터 34세까지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키코모리 군’, ‘취미와 관련된 용무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근처 편의점에는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상의 사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한 자 중,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로 ‘조현병 또는 신체적 질병’, ‘임신’을 선택한 자와 자택에서 일이나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 - ‘준 히키코모리 군’ 및 ‘히키코모리 군’ 중 ‘취미 관련 용무가 있을 때만 외출한다’고 응답한 자
内閣府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의 친화성’ 항목(‘히키코모리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한다’, ‘집이나 자기 방에서 은둔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기분이 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이유가 있으면 집이나 내 방에서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에 대해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
齊藤万比古 등 (2010), 厚生労働省 (2018)	<p>‘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대부분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 또한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혹은 음성 증상에 바탕을 둔 히키코모리 상태와는 다른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확정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이라 기술하고 있음</p>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취업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자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을 안 다니고 취업 준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함
- 반드시 은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차이가 있음
- 영국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
- 일본의 경우 15~34세 미취업, 가사노동, 학교나 직장 관련 연수에 등록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
-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함

■ 트웝스터(twixter)

- 트웝스터는 이도 저도 아닌(betwixt), 사이에 낀(between) 세대라는 의미로 2000년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직업을 갖지 않거나 직장을 다녀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들을 말함
- 캐나다에서는 직업 없이 떠돌다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생활한다 해서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 독일에서는 등지에 웅크리고 있다는 뜻의 네스트호커(nesthocker), 영국에서는 부모 곁으로 돌아와 할 일 없이 기대 사는 자녀를 키퍼스(kippers)라 부르고 있으며 돈이 떨어졌을 때만 임시직으로 일하고 정식취직을 기피하는 일본의 프리터(freeter)도 같은 맥락의 사회적 용어로 사용

■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

- 일본에서 유행한 신조어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주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후의 독신자, 혹은 잠재적 독신자로서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잠시 종사함
-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살고 있으며, 캥거루족 또는 자라 증후군과 유사함

제3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건 및 사고 사례

1)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사례

■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 2015년 1월 10일 튀르키예(당시 국명은 터키)를 여행하던 당시 17세였던 한국인 남성 김모 군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뒤, 이후 자발적으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 사건임
- 김 군은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지내왔으며, 부모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문틈으로 넣은 쪽지로만 대화할 정도로 가족과의 단절이 심각했음
- 김 군은 홀로 방 안에 있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은둔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항상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욕이 커서 IS의 참여 홍보에 강한 유혹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 일본 방송에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재연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여 국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일본의 8050(하치마루 고마루) 문제

- 2018년 1월 6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아파트에서 82세의 어머니와 52세의 딸이 한 방에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
 - 딸은 20대였던 1990년대 한때 직장생활을 했었으나 30년 가까이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지냈으며, 노모는 이웃과 접촉을 피했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정부의 생활보호 신청도 거부했다고 함
 - 사망 시점은 2017년 12월께로 노모는 사망한 달 중순, 중년의 딸은 그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12월 말 죽은 것으로 추정됨
- 주목할 점은 당시 집안에 음식을 살 수 있는 현금 9만 엔(약 91만 원)이 있었음에도 혼자 남은 딸은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사한 것으로 밝혀짐
- 2020년 5월에는 일본 중부 아이치현에서 87세의 아버지와 55세의 아들에게 같은 형태의 비극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2월 도쿄의 아파트에서는 91세 어머니와 66세 아들에게도 같은 형태의 비극이 확인
- 유일한 의지였던 부모의 죽음 이후 함께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동시 고립사', 또는 부모의 연금이 끊기면서 생활고로 인해 굶어 죽는 중년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최근 수년간 일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른바 '8050(하치마루 고마루)' 문제로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중년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한다는 뜻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가 초고령사회 현상과 맞물린 결과임

2) 범죄와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사례

■ 일본 가와사키 흉기 난동 사건

- 2019년 5월 28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주택가에서 등굣길 초등 학생 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임
 - 가해자는 부모가 이혼하고 어린 시절 삼촌 부부 밑에서 자랐으며, 장기간 직업을 갖지 못한 채 히키코모리 성향으로 집에 틀어박혀 지낸 것으로 전해졌음
 - 집에서 대량 살인사건을 다룬 잡지 2권을 발견한 경찰은 그가 방에 틀어박혀 이러한 잡지를 읽으면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의 삼촌 부부는 시 당국과 과거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인력을 집에 들일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히키코모리 성향의 이와사키 씨가 반대할까 걱정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전직 차관 비속 살인사건

- 2019년 6월 2일 일본 도쿄도 네리마구에서 중앙부처 차관을 지낸 뒤 퇴임한 70대 엘리트 관료가 히키코모리 성향의 4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 후 자수한 사건임
 - 인근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화를 내는 아들을 꾸짖다가 싸움으로 커지면서 사건이 발생함
 - 평소 직업이 없던 아들은 부모 신용카드로 매달 40만엔(약 430만 원) 가량을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하며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생활했으며,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함. 이웃은 평소 숨진 아들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함

■ 은둔형 외톨이는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외톨이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함

- 은둔하는 외톨이는 각각 다른 상황과 이유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전체를 뭉뚱그려 반사회적 행동과 결부시키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임
- 또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외부적 지원이 필요함

제4절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1) 국내 지자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은둔, 고립, 외로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현상이 사회문제로 환원되면서 최근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19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음
- “사회적 고립가구”와 “사회적 고립”은 주로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나 상태로 정의됨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6개 조례 모두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②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③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있어 ④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광주 동구, 서울 은평구, 광주 남구의 조례에서는 ⑤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적 범위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
-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지원을 포함함
- 광주광역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2020년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22~2026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함
 - 조례에 근거를 두어, 지원 내용의 분야를 지원기반 설치 및 운영, 전문 인력양성,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생 예방 강화로 구성하였음

<표 II-2> 은둔, 고립, 외로움의 키워드별 조례 및 조례안

키워드	시·도	시·군·구	조례 명칭
은둔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586호, 2022. 1. 6., 제정)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723호, 2022. 5. 6., 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761호, 2022. 10. 17., 제정)
	전라북도	-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61호, 2022. 11. 11., 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09호, 2022. 12. 26.,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56호, 2022. 12. 30., 제정)
고립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4일 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21호, 2020. 10. 2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04호, 2021. 5. 20., 제정)
외로움	부산광역시	-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925호, 2019. 5. 29., 제정)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519호, 2020. 12. 30.,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19호, 2021. 12. 15., 제정)
	경상북도	-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경상북도조례 제4721호, 2022. 9. 22., 제정)

주) 고독사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자치조례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은둔/ 고립/ 외로움 검색결과.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2.12.31. 인출.

<표 II-3>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내용

사도	시·군·구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위원회 설치 ¹⁾	지원 센터 설치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 ²⁾	평생 교육 지원	상담 및 활력 조성 등 ³⁾	기타 지원 ⁴⁾	부모 지원
광주광역시	-	○	○	○	○	○	○	○	○	○
광주광역시	동구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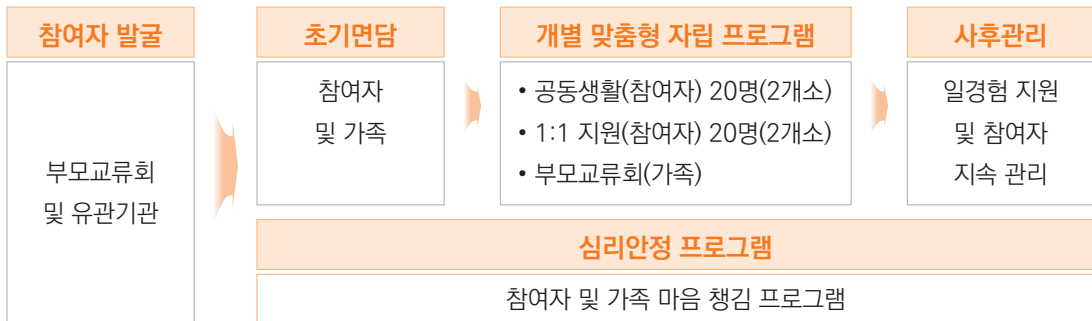
- 주: 1) 위원회 설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원회 등에 해당함.
 2) 직업 훈련 및 취업 관련 지원은 직업 적성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해당함.
 3) 상담 및 활력조성 등 지원은 심리 상담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자조모임,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 서비스 지원, 활력 조성 프로그램 등에 해당함.
 4) 기타 지원은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연구 사업, 복지서비스 개발,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해당함.
- 자료: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450호, 2021. 9. 30., 제정)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10. 15., 제정)
 3)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1. 11. 4., 제정)
 4)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453호, 2021. 3. 24., 제정)
 5)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427호, 2021. 7. 14., 제정)
 6)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전라남도조례 제5392호, 2021. 9. 30., 제정)

2) 국내 민간 영역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 2015년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2016년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 목적)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고립된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 맺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사회적응 및 자립이 어려워 고립된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이상 가족 외 인간관계 및 사회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존감 및 의욕 결여 등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고용 및 복지 등 사회적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지원 내용) 참여자 발굴부터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두고 초기면담과 공동생활 및 1:1 지원, 부모 지원 등 개별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사례를 추적 관리함

[그림 II-1] 청년재단 체인지업 지원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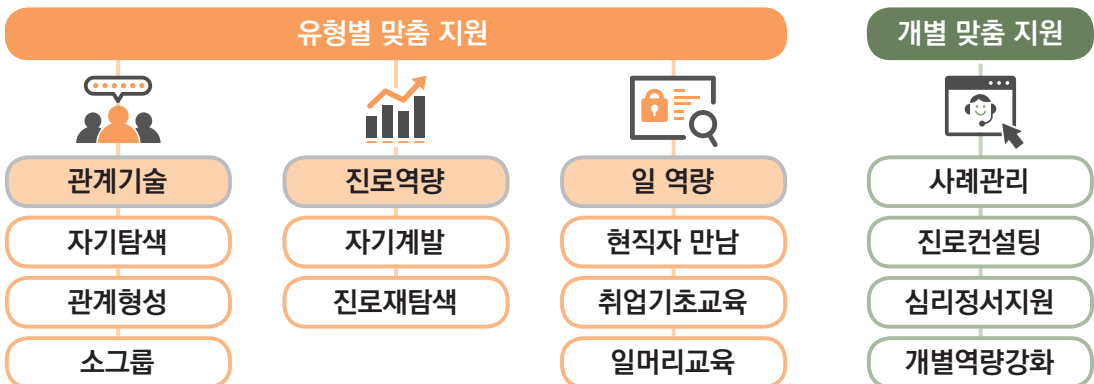


자료: 청년재단.(2020.12.13.).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으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2020년 7월부터 지역 기반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목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청년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사회진입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상태와 욕구에 따라 대상을 범주화하고, 종합적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며, 특히 청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지원사업을 기획하였음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사각지대 고립 청년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사회로의 이행을 포기한 청년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개인의 기질 및 부정적 경험으로 집단과 조직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 가족 등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
- (지원내용) 고립 청년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기탐색, 관계형성과 소그룹의 관계기술 재학습, 자기계발과 진로 재탐색의 진로 역량 강화, 일머리 교육과 기초교육 등 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 진로컨설팅, 심리정서지원 등의 개별 맞춤 지원을 제공함

[그림 II-2] 2020년 서울시 고립 청년 맞춤형 지원 구조



자료: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 연구보고. p.45.

3) 국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사례

■ 일본의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사업

-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은 히키코모리 지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p.140)
 - 첫째,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운영사업(2009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지역센터는 광역지자체 및 지정도시에 설치하며, 히키코모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 시정업무 지원이 주요 업무임
 - 둘째,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육성연수 제도(2013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주요 내용이며 히키코모리 지역센터에서 실시함
 - 셋째,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2018년부터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최근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상담 및 기관 연계 사업이 주요 내용임
 - 넷째, 생활곤궁자 지원제도(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중심)로, 히키코모리 뿐아니라 저소득층 전반에 대한 지원제도로 생활상 어려움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자립상담지원 사업', 취업을 지원하는 '취로준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초지자체의 활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2022년부터는 기초지자체의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을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실행하려 하고 있음
 - 또한, 기존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실시 중인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은 현재에는 여러 사업 중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① 상담지원 ② 휴식처 만들기 ③ 네트워크 구성을 필수사업으로 하는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가칭)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다음에는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의 센터 기능을 갖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로 이행을 촉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임

공역지자체 역할

(이정도시)

행정부

후방지원

(정부)

- 지자회 대상 보급개발
- (신규사업) 국가가 실시하는 인재 육성연수

[대상]

- 하키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직원
- 시정촌 상담창구 직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지정도시(50만명 이상 도시)

하키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 센터 기능

- ① 코디네이터(2인 이상) 상담지원(청구 홍보)
- (전화, 내원, 필요에 따라 방문)
- ② 휴식처 만들기
- ③ 연락협의회 설치(네트워크 구성)
- ④ 가족 대상 학습모임, 당사자 모임 개최
- ⑤ 서포터 파견
- ⑥ 민간단체 연계활동
- ⑦ 주민 등 대상 강연회, 연수 개최
- ⑧ 실업파악
- ⑨ 기초지자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후방지원

■ 인재육성연수사업

- ① 관계기관직원인재연수 실시
- ② 서포터 양성연수 실시

■ 기본지원

(신규사업) 일반시정촌 하키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 향후 모든 종차별 실시 목표

■ 센터 기능

- ① 코디네이터(2인 이상) 상담지원(청구 홍보)
- (전화, 내원, 필요에 따라 방문)
- ② 휴식처 만들기
- ③ 연락협의회 설치(네트워크 구성)
- ④ 가족 대상 학습모임, 당사자 모임 개최
- ⑤ 서포터 파견
- ⑥ 민간단체 연계활동
- ⑦ 주민 등 대상 강연회, 연수 개최
- ⑧ 실업파악

■ 인재육성연수사업

- ① 관계기관직원인재연수 실시
- ② 서포터 양성연수 실시

■ 고급지원

(신규사업) 일반시정촌 하키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 2개 이상 지자체 공동실시 가능

■ 지역 니즈에 따라 규정된 아래 사업을 임의로 선택 실시

- ① 상담지원(청구 홍보)
- ② 휴식처 만들기
- ③ 휴식처 만들기
- ④ 네트워크 구성
- ⑤ 가족 대상 학습모임, 당사자 모임 개최
- ⑥ 서포터 파견
- ⑦ 민간단체 연계활동
- ⑧ 주민 등 대상 강연회, 연수 개최
- ⑨ 실업파악

■ 인재육성연수사업

- ① 서포터 양성연수 실시

(신규사업) 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사업 개시 지원

① 시정촌과 연계한 센터의 위성센터 설치

시정촌 상담체제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지원체제가 취약한 시정촌에 하키키코모리 위성센터 설치

[사업개요]

- 보조율: 국가1/2 공역1/2
- 위성센터 설치 기한: 월적 2년
- 시정촌 상담지원체제 이해 시 시정촌 연계 구조를 유지하고 복수 시정촌이 사업의 공동실시도 가능

② 소규모 시정촌 등 체제 정비가 속해 지원

시정촌 하키키코모리 지원사업 실시를 시작하기 위해, 지원종료 후에도 시정촌이 계속 사업 실시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한 시정촌에 재정지원 및 노하우 등을 세트로 유기한 지원

[사업개요]

- 보조율: 국가1/2 도도부현1/2
- 시정촌1/2
- 기한 2년 지원종료 후 시정촌(복수의 시정촌 공동실시도 가능)이 사업을 계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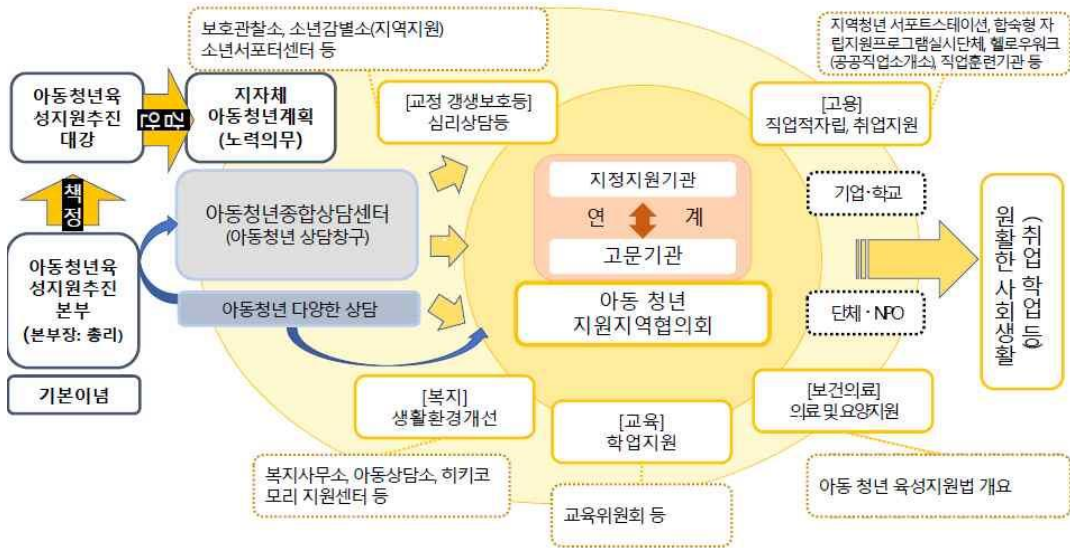
기초지자체 역할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취업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p. 150의 그림 재인용

- 셋째, 아동·청년지원체제 인재 육성으로 히키코모리 등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 지원에 임하는 전문 인재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웃리치(방문지원)이나 담당 업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넷째, 아동·청년육성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추진으로 지역에서 아동·청년 육성지원 활동을 하는 관민 관계자(청년을 포함)를 대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등이 주체가 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수를 추진함

[그림 II-4] 아동·청년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체제



자료: 1) 厚生労働省. (2010. 4. 1.).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ついて.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s_gaiyo.pdf에서 2020. 9. 15. 인출.

2) 정세정 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p.129의 그림 재인용.

■ 유럽연합(EU)의 사회적 고립 대처 전략

- 영국에서는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 신설 이후 정부의 외로움 대처 전략, 정책 그리고 그 성과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에 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측정도구를 활용한 양적 평가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영국이나 일본처럼 고독부 장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회원국 각국의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적 담론의 확산 수준에 따라 외로움 책임 장관을 신설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존재함(Baarck *et al.*, 2021, p.49; Publications of the Finnish Government [PFG], 2019, pp.8-10)

- 독일과 스웨덴은 외로움 대처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고 일정 정도 공론화도 진행 중임(Baarck *et al.*, 2021, p.49)
 - 독일에서 외로움 책임 장관 임명 아이디어는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외로움 담당관을 임명계획을 세우고 있음(Baarck *et al.*, 2021, p.49)
 - 스웨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노인의 외로움과 그 개입전략(도시계획, 교통, 문화, 영리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공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Baarck *et al.*, 2021, p.49)
- 즉, 유럽연합(EU)은 각국 정부와 협력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계획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전략, 개입, 실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음

■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청년 지원

- 핀란드는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socially excluded young people)’에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사회 배제 청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의 사회적 배제 예방을 목표로 시행되는 아웃리치 청년사업(outreach youth work)은 “교육·훈련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며(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21; Into, 2021a), 이 범주에 공공서비스에 접근하지 않는 은둔 청년이 포함됨
- 핀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조직인 청년워크숍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배제 청년을 찾아 통합적인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함
 - 핀란드는 1993년 보건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에 독립적인 예산과 서비스 기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었음
 - 청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사회 배제 위험이 높은 청년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사회 배제 청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
 - 아웃리치 청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청년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청년워크숍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안내받거나 사회참여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강함

제5절 결론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치열한 경쟁 현상이 청년들을 좁은 골방에 갇히게 함
-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과 가정간편식 및 배달앱의 쉬운 사용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은둔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층위가 다양하여 은둔 특성에 맞춘 접근과 대책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정확한 통계 및 지원 예산 규모를 측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지원조례를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의 조례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전국 각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된 민간단체들과도 연합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지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과는 차이가 있음
- 지방소멸의 관점에서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은둔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예방해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는 정책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함

제3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제1절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제3절 결론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3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제1절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개요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해당 실태조사에서는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243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응답에 대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성별, 가구원 수, 생계 책임, 정부지원 여부, 특징 등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2022년 실태조사에 응한 243명의 은둔형 외톨이의 응답에 대하여 인구학적 특성 외 다양한 특성 및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표 III-1> 실태분석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 수, 생계책임, 정부지원여부 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특성별 차이	주요 특성별 외출정도, 은둔기간, 은둔계기, 은둔시작시기	교차분석, 차이분석
영 향 요 인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 관련 영향요인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제2절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¹⁾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 및 사회·경제적 상황

-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거주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187명(77.0%), 여성 56명(23.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응답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대 90명(37.0%), 40대 55명(22.6%), 60대 이상 46명(18.9%) 등의 순으로 주로 중고령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응답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126명(52.1%),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명(15.7%), 중학교 중퇴 이하가 36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졸 이상 학력의 은둔형 외톨이는 전체 응답자 중 67.8%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응답자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 1명은 131명(53.9%), 가구원 수 2명은 61명(25.1%), 가구원 수 3명이 33명(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응답자의 거주유형을 살펴본 결과, 혼자 거주한다는 응답이 130명(5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거주한다는 응답이 93명(3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계유지의 책임, 정부지원 상황에 관한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생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생계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응답이 120명(4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어머니 66명(67.2%), 아버지 20명(8.2%)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125명(5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90명(38.0%)이었으며 지원여부를 모른다는 응답도 23명(11.5%)로 나타남

1) 2022년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에 근거한 것임

<표 III-2> 은둔형 외톨이 인구학적 분포 및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인원(분포)	구분		인원(분포)
성별 (243명)	남성	187(77.0)	가구 원수 (243명)	1명	131(53.9)
	여성	56(23.0)		2명	61(25.1)
연령 (243명)	10대	1(0.4)		3명	33(13.6)
	20대	19(7.8)		4명	11(4.5)
	30대	32(13.2)		5명	7(2.9)
	40대	55(22.6)	거주 유형 (243명)	혼자 거주	130(53.5)
	50대	90(37.0)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포함 가족과 거주	93(38.3)
	60대 이상	46(18.9)		형제, 자매, 조부모와 거주	13(5.3)
학력 (242명)	중학교 중퇴 이하	36(14.9)		기타	7(2.9)
	중학교 졸업	29(12.0)	생계 책임 (243명)	아버지	20(8.2)
	고등학교 중퇴	13(5.4)		어머니	66(27.2)
	고등학교 졸업	126(52.1)		형제	16(6.6)
	대학교 졸업 이상	38(15.7)		본인	120(49.4)
정부 지원 (243명)	지원	125(51.4)		배우자	3(1.2)
	미지원	90(37.0)		기타	18(7.4)
	모름	28(11.5)			

* 주1: '학력'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 주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라남도 내 은둔형 외톨이 243명을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를 파악한 결과, 여수시 32명(13.2%), 보성군 27명(11.1%), 순천시 25명(10.3%), 목포시 23명(9.5%), 해남군 22명(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은둔형 외톨이 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주요 지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비율을 보면, 여수시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53.1%, 46.9%였고, 목포시의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56.5%, 43.5%로 나타나 여수와 목포의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 간 인구구조의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보성군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92.6%, 7.4%였고, 순천시의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68.0%, 32.0%, 해남군의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81.8%, 18.2%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중 남성과 여성 간 인구구조의 비중 차이가 큰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243명 중 50대 이상이 136명(55.9%)으로 나타나 40대 이하에 비해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남
 - 세부 지역별 50대 이상 은둔형 외톨이 비중을 보면, 여수시는 56.3%, 보성군은 70.4%, 순천시는 52.0%, 목포시는 60.8%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전라남도 지역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성별		연령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243 (100.0)	187 (77.0)	56 (23.0)	1 (0.4)	19 (7.8)	32 (13.2)	55 (22.6)	90 (37.0)	46 (18.9)
여수	32 (13.2)	17 (53.1)	15 (46.9)	0 (0.0)	3 (9.4)	4 (12.5)	7 (21.9)	12 (37.5)	6 (18.8)
보성	27 (11.1)	25 (92.6)	2 (7.4)	0 (0.0)	1 (3.7)	1 (3.7)	6 (22.2)	14 (51.9)	5 (18.5)
순천	25 (10.3)	17 (68.0)	8 (32.0)	1 (4.0)	2 (8.0)	5 (20.0)	4 (16.0)	6 (24.0)	7 (28.0)
목포	23 (9.5)	13 (56.5)	10 (43.5)	0 (0.0)	2 (8.7)	4 (17.4)	3 (13.0)	7 (30.4)	7 (30.4)
해남	22 (9.0)	18 (81.8)	4 (18.2)	0 (0.0)	3 (13.6)	2 (9.1)	9 (40.9)	5 (22.7)	3 (13.6)
신안	17 (7.0)	14 (82.4)	3 (17.6)	0 (0.0)	0 (0.0)	3 (17.6)	3 (17.6)	8 (47.1)	3 (17.6)
영광	16 (6.6)	14 (87.5)	2 (12.5)	0 (0.0)	0 (0.0)	2 (12.5)	7 (43.8)	6 (37.5)	1 (6.3)
완도	15 (6.2)	12 (80.0)	3 (20.0)	0 (0.0)	2 (13.3)	3 (20.0)	2 (13.3)	7 (46.7)	1 (6.7)
구례	11 (4.5)	8 (72.7)	3 (27.3)	0 (0.0)	0 (0.0)	0 (0.0)	6 (54.5)	3 (27.3)	2 (18.2)
화순	9 (3.7)	9 (100.0)	0 (0.0)	0 (0.0)	0 (0.0)	2 (22.2)	2 (22.2)	2 (22.2)	3 (33.3)
광양	6 (2.5)	6 (100.0)	0 (0.0)	0 (0.0)	0 (0.0)	1 (16.7)	0 (0.0)	4 (66.7)	1 (16.7)
담양	6 (2.5)	5 (83.3)	1 (16.7)	0 (0.0)	0 (0.0)	2 (33.3)	0 (0.0)	1 (16.7)	3 (50.0)
강진	6 (2.5)	5 (83.3)	1 (16.7)	0 (0.0)	1 (16.7)	0 (0.0)	1 (16.7)	3 (50.0)	1 (16.7)
고흥	6 (2.5)	6 (100.0)	0 (0.0)	0 (0.0)	0 (0.0)	1 (16.7)	2 (33.3)	3 (50.0)	0 (0.0)
영암	5 (2.1)	4 (80.0)	1 (20.0)	0 (0.0)	1 (20.0)	0 (0.0)	1 (20.0)	2 (40.0)	1 (20.0)
나주	4 (1.6)	3 (75.0)	1 (25.0)	0 (0.0)	1 (25.0)	0 (0.0)	1 (25.0)	1 (25.0)	1 (25.0)
무안	4 (1.6)	4 (100.0)	0 (0.0)	0 (0.0)	1 (25.0)	0 (0.0)	0 (0.0)	3 (75.0)	0 (0.0)
곡성	3 (1.2)	3 (100.0)	0 (0.0)	0 (0.0)	0 (0.0)	0 (0.0)	1 (33.3)	1 (33.3)	1 (33.3)
함평	3 (1.2)	2 (66.7)	1 (33.3)	0 (0.0)	1 (33.3)	1 (33.3)	0 (0.0)	1 (33.3)	0 (0.0)
장흥	1 (0.4)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장성	1 (0.4)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진도	1 (0.4)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2)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 은둔형 외톨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하여 외출 정도, 은둔 기간, 은둔 계기, 은둔의 출현 시기 등 다양한 특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 봄
 - 은둔형 외톨이 243명을 대상으로 외출 정도, 즉, 은둔의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필수적인 사유로 극히 제한적 외출만 한다는 응답이 129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52명(21.4%),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경우도 31명(12.3%)으로 나타나 스스로 집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운 정도로 보이는 응답자가 87.3%인 것으로 볼 때,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은둔 기간을 살펴본 결과, 10년 이상이 68명(28.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7명(23.5%), 1년 이상 3년 미만이 53명(2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은둔하게 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장기적 은둔형 외톨이가 55.5%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은둔하게 된 이유를 취업 실패, 정신적 어려움, 대인관계, 학업 중단 또는 진학 실패, 부모님(가족)과의 갈등,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신적인 어려움(우울증 등)을 은둔하게 된 이유로 든 응답자는 94명(38.7%), 대인관계 실패가 원인이라는 응답자는 36명(14.8%), 실직을 원인으로 보는 응답자는 24명(9.9%)으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은 63명(25.9%)이었음
 - 은둔을 시작하게 된 시기에 대해 학령기, 청년 초, 중기, 중년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만 40세 이상이 123명(50.8%), 만 30-39세 이하가 53명(21.9%), 만 19-24세 이하가 30명(1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하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4> 은둔형 외톨이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인원(분포)
외출정도 (은둔수준) (243명)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31(12.8)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52(21.4)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129(53.1)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22(9.1)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9(3.7)
은둔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25(10.3)
	1년~3년 미만	53(21.8)
	3년~5년 미만	40(16.5)
	5년~10년 미만	57(23.5)
	10년 이상	68(28.0)
은둔이유 (243명)	취업 실패	16(6.6)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94(38.7)
	대인관계	36(14.8)
	학업중단 또는 진학실패	2(0.8)
	실직	24(9.9)
	부모님(가족)과 갈등	8(3.3)
	기타	63(25.9)
은둔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	4(1.7)
	만13~15세 이하(중)	3(1.2)
	만16~18세 이하(고)	6(2.5)
	만 19~24세 이하	30(12.4)
	만 25~29세 이하	23(9.5)
	만 30~39세 이하	53(21.9)
	만 40세 이상	123(50.8)

* 주1: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 주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

-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경제적 상황 분석에 이어 외출정도, 은둔기간, 은둔계기 은둔 시작 시기 등 다양한 특성별로 그 현황의 차이를 분석함
- 은둔형 외톨이의 성별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²⁾, 남성과 여성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각각 52.9%, 53.6%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외출 활동을 하는 남성 은둔형 외톨이는 12.8%, 여성은 12.5%에 불과하여, 이들을 제외 하면 대체로 은둔의 수준이 높고 성별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은 10년 이상(29.4%), 5년 이상 10년 미만(24.6%), 1년 이상 3년 미만(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28.6%), 10년 이상(23.2%), 5년 이상 10년 미만(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라 은둔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35.3%), 기타(27.3%), 대인관계(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50.0%), 기타(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만 40세 이상(53.5%),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20.9%),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만 40세 이상(41.8%),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25.5%),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2) 설문문항에서(8번) '평소 외출 정도'에 대하여 '①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②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③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④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⑤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①을 '방에서만 활동', ②를 '집에서만 활동', ③을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④와 ⑤를 '소극적 외출 활동'으로 간주하였음

<표 III-5> 성별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남	여	χ^2
은둔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24(12.8)	7(12.5)	.245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99(52.9)	30(53.6)	
	집에서만 활동	41(21.9)	11(19.6)	
	방에서만 활동	23(12.3)	8(14.3)	
은둔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18(9.6)	7(12.5)	2.921
	1년~3년 미만	37(19.8)	16(28.6)	
	3년~5년 미만	31(16.6)	9(16.1)	
	5년~10년 미만	46(24.6)	11(19.6)	
	10년 이상	55(29.4)	13(23.2)	
은둔이유 (243명)	취업 실패	11(5.9)	5(8.9)	7.863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66(35.3)	28(50.0)	
	대인관계	32(17.1)	4(7.1)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1(0.5)	1(1.8)	
	실직	20(10.7)	4(7.1)	
	부모님(가족)과 갈등	6(3.2)	2(3.6)	
	기타	51(27.3)	12(21.4)	
은둔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등학교)	3(1.6)	1(1.8)	4.735
	만13~15세 이하(중학교)	3(1.6)	0(0.0)	
	만16~18세 이하(고등학교)	4(2.1)	2(3.6)	
	만19~24세 이하	23(12.3)	7(12.7)	
	만25~29세 이하	15(8.0)	8(14.5)	
	만30~39세 이하	39(20.9)	14(25.5)	
	만40세 이상	100(53.5)	23(41.8)	

* 주1: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 주2: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전 연령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는 40.0%, 30대 53.1%, 40대 58.2%, 50대 48.9%, 60대 이상 60.9%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45.0%, 30대, 40대, 50대에서는 10년 이상 34.4%, 38.2%, 26.7%, 60대 이상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30.4%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에 따라 은둔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 40대, 50대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60.0%, 36.4%, 43.3%로 가장 많았고, 30대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과 대인관계를 그 이유로 든 응답이 28.1%로 동일하게 나타남. 특히, 연령에 따른 은둔의 이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chi^2=51.894$, $p<.01$), 20대 이하의 경우, 다른 이유들에 비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이유로 응답한 자가 60.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연령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는 만 19세에서 24세 이하가 65.0%, 30대는 만 25-29세 34.4%, 40대는 만 30-39세 47.3%, 50대와 60대는 만 40세 이상으로 각각 78.9%, 88.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213.334$, $p<.001$),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둔을 시작하게 된 연령 또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

<표 III-6> 연령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χ^2
은둔 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2(10.0)	2(6.3)	5(9.1)	17(18.9)	5(10.9)	12.195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8(40.0)	17(53.1)	32(58.2)	44(48.9)	28(60.9)	
	집에서만 활동	7(35.0)	8(25.0)	8(14.5)	20(22.2)	9(19.6)	
	방에서만 활동	3(15.0)	5(15.6)	10(18.2)	9(10.0)	4(8.7)	
은둔 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1(5.0)	2(6.3)	4(7.3)	13(14.4)	5(10.9)	25.078
	1년~3년 미만	9(45.0)	7(21.9)	10(18.2)	18(20.0)	9(19.6)	
	3년~5년 미만	7(35.0)	3(9.4)	6(10.9)	17(18.9)	7(15.2)	
	5년~10년 미만	2(10.0)	9(28.1)	14(25.5)	18(20.0)	14(30.4)	
	10년 이상	1(5.0)	11(34.4)	21(38.2)	24(26.7)	11(23.9)	
은둔 이유 (243명)	취업 실패	4(20.0)	4(12.5)	2(3.6)	6(6.7)	0(0.0)	51.894**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12(60.0)	9(28.1)	20(36.4)	39(43.3)	14(30.4)	
	대인관계	3(15.0)	9(28.1)	8(14.5)	10(11.1)	6(13.0)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1(5.0)	1(3.1)	0(0.0)	0(0.0)	0(0.0)	
	실직	0(0.0)	1(3.1)	2(3.6)	12(13.3)	9(19.6)	
	부모님(가족)과 갈등	0(0.0)	1(3.1)	4(7.3)	1(1.1)	2(4.3)	
	기타	0(0.0)	7(21.9)	19(34.5)	22(24.4)	15(32.6)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	1(5.0)	0(0.0)	1(1.8)	2(2.2)	0(0.0)	213.334***
	만13~15세 이하(중)	0(0.0)	1(3.1)	2(3.6)	0(0.0)	0(0.0)	
	만16~18세 이하(고)	3(15.0)	3(9.4)	0(0.0)	0(0.0)	0(0.0)	
	만19~24세 이하	13(65.0)	8(25.0)	7(12.7)	2(2.2)	0(0.0)	
	만25~29세 이하	3(15.0)	11(34.4)	7(12.7)	1(1.1)	1(2.2)	
	만30~39세 이하	0(0.0)	9(28.1)	26(47.3)	14(15.6)	4(8.9)	
	만40세 이상	0(0.0)	0(0.0)	12(21.8)	71(78.9)	40(88.9)	

주1: * $\leq .05$, ** $\leq .01$, *** $\leq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학력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 학력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졸 56.9%, 고졸 50.4%, 대졸 55.3%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학력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중졸과 대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각각 30.8%, 31.6%, 고졸은 1년 이상 3년 미만과 10년 이상 모두 26.6%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학력에 따라 은둔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력 구분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가 각각 38.5%, 40.3%,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학력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력 구간에서 만 40세 이상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각각 61.5%, 46.0%, 5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chi^2=21.200$, $p<.05$). 중졸, 고졸은 초등학교 시기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있었던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만 19세-24세 이하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대 초반(만 19-24세), 대졸 이상의 경우 대학을 졸업할 시점인 20대 후반(만 25-29세)에 분포가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적임

<표 III-7> 학력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종졸	고졸	대졸	χ^2
은둔 수준 (242명)	소극적 외출 활동	6(9.2)	18(12.9)	7(18.4)	3.945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37(56.9)	70(50.4)	21(55.3)	
	집에서만 활동	12(18.5)	34(24.5)	6(15.8)	
	방에서만 활동	10(15.4)	17(12.2)	4(10.5)	
은둔 기간 (242명)	6개월~1년 미만	7(10.8)	14(10.1)	4(10.5)	8.727
	1년~3년 미만	10(15.4)	37(26.6)	6(15.8)	
	3년~5년 미만	9(13.8)	26(18.7)	5(13.2)	
	5년~10년 미만	20(30.8)	25(18.0)	12(31.6)	
	10년 이상	19(29.2)	37(26.6)	11(28.9)	
은둔 이유 (242명)	취업 실패	3(4.6)	9(6.5)	4(10.5)	6.540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25(38.5)	56(40.3)	13(34.2)	
	대인관계	10(15.4)	19(13.7)	7(18.4)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1(1.5)	1(0.7)	0(0.0)	
	실직	7(10.8)	13(9.4)	4(10.5)	
	부모님(가족)과 갈등	0(0.0)	6(4.3)	2(5.3)	
	기타	19(29.2)	35(25.2)	8(21.1)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등학교)	2(3.1)	2(1.4)	0(0.0)	21.200*
	만13~15세 이하(중학교)	2(3.1)	1(0.7)	0(0.0)	
	만16~18세 이하(고등학교)	1(1.5)	5(3.6)	0(0.0)	
	만19~24세 이하	4(6.2)	24(17.3)	2(5.3)	
	만25~29세 이하	4(6.2)	11(7.9)	8(21.1)	
	만30~39세 이하	12(18.5)	32(23.0)	9(23.7)	
	만40세 이상	40(61.5)	64(46.0)	19(50.0)	

주1: * $\leq .05$, ** $\leq .01$, *** $\leq .001$

주2: '학력'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가구원 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 구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는 57.3%, 2인 45.9%, 3인 이상 51.0%로 나타났으나, 가구원 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가구원 수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7%로 가장 많았고 가구원 수 2인과 3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 41%, 33.3%로 나타났으나, 가구원 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가구원 수에 따라 은둔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모든 가구원 수 구분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가 각각 32.1%, 47.5%,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기타에 30.5%, 실직 16.0%,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기타에 21.3%, 대인관계 18.0%, 3인 이상인 경우 대인관계에 21.6%, 기타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외 은둔의 이유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chi^2=32.886$, $p<.01$)
 - 가구원 수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만 40세 이상이 66.4%, 만 30-39세 이하 19.1%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가구원 수가 2인에서는 만 40세 이상이 37.7%, 만 30-39세 이하 27.9%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가구원 수 3인 이상에서는 만 19-24세 이하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28.0%이었고, 다음으로 만 40세 이상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나, 1~2인 가구원 수에 비해 3인 가구원 수의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chi^2=56.316$, $p<.001$)

<표 III-8> 가구원 수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χ^2
은둔 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21(16.0)	7(11.5)	3(5.9)	9.733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75(57.3)	28(45.9)	26(51.0)	
	집에서만 활동	23(17.6)	17(27.9)	12(23.5)	
	방에서만 활동	12(9.2)	9(14.8)	10(19.6)	
은둔 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17(13.0)	6(9.8)	2(3.9)	13.965
	1년~3년 미만	30(22.9)	9(14.8)	14(27.5)	
	3년~5년 미만	23(17.6)	9(14.8)	8(15.7)	
	5년~10년 미만	35(26.7)	12(19.7)	10(19.6)	
	10년 이상	26(19.8)	25(41.0)	17(33.3)	
은둔 이유 (243명)	취업 실패	7(5.3)	6(9.8)	3(5.9)	32.886**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42(32.1)	29(47.5)	23(45.1)	
	대인관계	14(10.7)	11(18.0)	11(21.6)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0(0.0)	0(0.0)	2(3.9)	
	실직	21(16.0)	2(3.3)	1(2.0)	
	부모님(가족)과 갈등	7(5.3)	0(0.0)	1(2.0)	
	기타	40(30.5)	13(21.3)	10(19.6)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등학교)	1(0.8)	1(1.6)	2(4.0)	56.316***
	만13~15세 이하(중학교)	0(0.0)	1(1.6)	2(4.0)	
	만16~18세 이하(고등학교)	0(0.0)	1(1.6)	5(10.0)	
	만19~24세 이하	6(4.6)	10(16.4)	14(28.0)	
	만25~29세 이하	12(9.2)	8(13.1)	3(6.0)	
	만30~39세 이하	25(19.1)	17(27.9)	11(22.0)	
	만40세 이상	87(66.4)	23(37.7)	13(26.0)	

주1: * $\leq .05$, ** $\leq .01$, *** $\leq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거주유형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거주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 구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 58.5%,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46.2%, 형제·자매·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53.8%로 나타났으나 거주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거주유형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혼자 거주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인 26.9%,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이 38.7%, 형제·자매·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거주유형에 따른 은둔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 구간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가 각각 33.1%, 44.1%, 38.5%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외 혼자 거주하는 경우 실직(16.9%)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부모·배우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21.5%)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chi^2=36.758$, $p<.01$)
 - 거주유형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혼자 거주하는 경우, 만 40세 이상이 66.9%, 만 30-39세 이하 20.0% 등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부모·배우자·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만 40세 이상이 29.0%, 만 19-24세 이하 24.7%, 형제·자매·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만 40세 이상이 58.3%, 만 19-24세 이하 16.7%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chi^2=58.351$, $p<.001$)

<표 III-9>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혼자 거주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포함 가족	형제, 자매, 조부모	기타	χ^2
은둔 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19(14.6)	10(10.8)	2(15.4)	0(0.0)	13.383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76(58.5)	43(46.2)	7(53.8)	3(42.9)	
	집에서만 활동	24(18.5)	24(25.8)	3(23.1)	1(14.3)	
	방에서만 활동	11(8.5)	16(17.2)	1(7.7)	3(42.9)	
은둔 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17(13.1)	6(6.5)	2(15.4)	0(0.0)	16.952
	1년~3년 미만	30(23.1)	19(20.4)	3(23.1)	1(14.3)	
	3년~5년 미만	23(17.7)	16(17.2)	1(7.7)	0(0.0)	
	5년~10년 미만	35(26.9)	16(17.2)	3(23.1)	3(42.9)	
	10년 이상	25(19.2)	36(38.7)	4(30.8)	3(42.9)	
은둔 이유 (243명)	취업 실패	6(4.6)	7(7.5)	3(23.1)	0(0.0)	36.758 **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43(33.1)	41(44.1)	5(38.5)	5(71.4)	
	대인관계	14(10.8)	20(21.5)	2(15.4)	0(0.0)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0(0.0)	2(2.2)	0(0.0)	0(0.0)	
	실직	22(16.9)	2(2.2)	0(0.0)	0(0.0)	
	부모님(가족)과 갈등	6(4.6)	2(2.2)	0(0.0)	0(0.0)	
	기타	39(30.0)	19(20.4)	3(23.1)	2(28.6)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등학교)	1(0.8)	3(3.2)	0(0.0)	0(0.0)	58.351 ***
	만13~15세 이하(중학교)	0(0.0)	3(3.2)	0(0.0)	0(0.0)	
	만16~18세 이하(고등학교)	0(0.0)	5(5.4)	1(8.3)	0(0.0)	
	만19~24세 이하	4(3.1)	23(24.7)	2(16.7)	1(14.3)	
	만25~29세 이하	12(9.2)	10(10.8)	1(8.3)	0(0.0)	
	만30~39세 이하	26(20.0)	22(23.7)	1(8.3)	4(57.1)	
	만40세 이상	87(66.9)	27(29.0)	7(58.3)	2(28.6)	

주1: * $\leq .05$, ** $\leq .01$, *** $\leq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생계책임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누가 생계책임을 담당하는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아버지인 경우 50.0%, 어머니인 경우 48.5%, 형제인 경우 37.5%, 본인인 경우 61.7%, 배우자에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는 66.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chi^2=32.165$, $p<.01$).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극히 제한적 활동 다음으로 집에서만 활동한다는 응답이 각각 25.0%(아버지), 27.3%(어머니)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본인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은둔수준이 다소 높은 분포로 보임
 - 생계책임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은둔기간이 5년 이상이라 응답한 자는 45.8%인데 반해, 생계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 경우가 60.6%, 형제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는 62.5%로 나타났으나(기타 제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생계책임에 따른 은둔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가 각각 아버지 25.0%, 어머니 47.0%, 형제 56.3%, 본인 33.3%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외 실직(15.8%)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타 응답 제외)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chi^2=48.345$, $p<.05$). 이에, 본인 스스로에게 생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정신적 어려움 외 실직과 같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유로 인해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생계책임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 만 19~24세에 은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 28.8%, 형제 56.3%, 본인 67.2% 등에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에 은둔하기 시작한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chi^2=60.893$, $p<.01$). 특히,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만 40세 이상이 되어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67.2%로 높았고, 아버지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 초기(만 19~24세)에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본인 외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은둔하게 되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III-10> 생계책임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	본인	배우자	기타	χ^2
은둔 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1 (5.0)	4 (6.1)	2 (12.5)	23 (19.2)	0 (0.0)	1 (5.6)	32.165 **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10 (50.0)	32 (48.5)	6 (37.5)	74 (61.7)	2 (66.7)	5 (27.8)	
	집에서만 활동	5 (25.0)	18 (27.3)	5 (31.3)	15 (12.5)	1 (33.3)	8 (44.4)	
	방에서만 활동	4 (20.0)	12 (18.2)	3 (18.8)	8 (6.7)	0 (0.0)	4 (22.2)	
은둔 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3 (15.0)	3 (4.5)	0 (0.0)	18 (15.0)	0 (0.0)	1 (5.6)	21.980
	1년~3년 미만	5 (25.0)	12 (18.2)	2 (12.5)	26 (21.7)	2 (66.7)	6 (33.3)	
	3년~5년 미만	2 (10.0)	11 (16.7)	4 (25.0)	21 (17.5)	0 (0.0)	2 (11.1)	
	5년~10년 미만	3 (15.0)	18 (27.3)	6 (37.5)	28 (23.3)	0 (0.0)	2 (11.1)	
	10년 이상	7 (35.0)	22 (33.3)	4 (25.0)	27 (22.5)	1 (33.3)	7 (38.9)	
은둔 이유 (243명)	취업 실패	3 (15.0)	8 (12.1)	2 (12.5)	3 (2.5)	0 (0.0)	0 (0.0)	48.345 *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	5 (25.0)	31 (47.0)	9 (56.3)	40 (33.3)	2 (66.7)	7 (38.9)	
	대인관계	5 (25.0)	12 (18.2)	1 (6.3)	15 (12.5)	1 (33.3)	2 (11.1)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0 (0.0)	2 (3.0)	0 (0.0)	0 (0.0)	0 (0.0)	0 (0.0)	
	실직	0 (0.0)	1 (1.5)	0 (0.0)	19 (15.8)	0 (0.0)	4 (22.2)	
	부모님(가족)과 갈등	1 (5.0)	0 (0.0)	0 (0.0)	6 (5.0)	0 (0.0)	1 (5.6)	
	기타	6 (30.0)	12 (18.2)	4 (25.0)	37 (30.8)	0 (0.0)	4 (22.2)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	1 (5.0)	2 (3.0)	0 (0.0)	1 (0.8)	0 (0.0)	0 (0.0)	60.893 **
	만13~15세 이하(중)	1 (5.0)	2 (3.0)	0 (0.0)	0 (0.0)	0 (0.0)	0 (0.0)	
	만16~18세 이하(고)	2 (10.0)	4 (6.1)	0 (0.0)	0 (0.0)	0 (0.0)	0 (0.0)	
	만19~24세 이하	7 (35.0)	11 (16.7)	2 (12.5)	7 (5.9)	0 (0.0)	3 (16.7)	
	만25~29세 이하	2 (10.0)	10 (15.2)	1 (6.3)	8 (6.7)	0 (0.0)	2 (11.1)	
	만30~39세 이하	5 (25.0)	18 (27.3)	4 (25.0)	23 (19.3)	1 (33.3)	2 (11.1)	
	만40세 이상	2 (10.0)	19 (28.8)	9 (56.3)	80 (67.2)	2 (66.7)	11 (61.1)	

주1: *(<.05, **(<.01,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하게 된 이유,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정부지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 구간에서 모두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57.6%,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50.0%,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 42.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chi^2=14.858$, $p<.05$)
 - 정부지원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부지원 및 미지원 모두 은둔기간이 10년 이상된 경우가 각각 26.4%, 32.2%로 가장 높은 반면,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 은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chi^2=17.986$, $p<.05$), 은둔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서도 정부지원 30.4%, 미지원 28.9%에 비해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50.0%로 나타나 은둔하게 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부지원 정책을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정부지원에 따른 은둔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가 정부지원 44.8%, 미지원 40.0%으로 높게 나타나(기타 응답 제외)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chi^2=26.579$, $p<.01$)
 - 정부지원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전 구간에서 만 40세 이상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지원 58.1%, 미지원 41.1%, 모름 50.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chi^2=27.028$, $p<.01$), 은둔 시작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보면, 정부지원 81.5%, 미지원 61.1, 모름 71.4%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은둔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III-11> 정부지원에 따른 특성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지원	미지원	모름	χ^2
은둔 수준 (243명)	소극적 외출 활동	15(12)	7(7.78)	9(32.14)	14.858*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	72(57.6)	45(50.0)	12(42.9)	
	집에서만 활동	22(17.6)	25(27.8)	5(17.9)	
	방에서만 활동	16(12.8)	13(14.4)	2(7.14)	
은둔 기간 (243명)	6개월~1년 미만	11(8.8)	5(5.6)	9(32.1)	17.986*
	1년~3년 미만	27(21.6)	21(23.3)	5(17.9)	
	3년~5년 미만	22(17.6)	15(16.7)	3(10.7)	
	5년~10년 미만	32(25.6)	20(22.2)	5(17.9)	
	10년 이상	33(26.4)	29(32.2)	6(21.4)	
은둔 이유 (243명)	취업 실패	4(3.2)	11(12.2)	1(3.6)	26.579**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56(44.8)	36(40.0)	2(7.1)	
	대인관계	15(12.0)	15(16.7)	6(21.4)	
	학업중단이나 진학실패	1(0.8)	1(1.1)	0(0.0)	
	실직	14(11.2)	5(5.6)	5(17.9)	
	부모님(가족)과 갈등	3(2.4)	3(3.3)	2(7.1)	
	기타	32(25.6)	19(21.1)	12(42.9)	
은둔 시작 나이 (242명)	만12세 이하(초등학교)	1(0.8)	1(1.1)	2(7.1)	27.028**
	만13~15세 이하(중학교)	0(0.0)	2(2.2)	1(3.6)	
	만16~18세 이하(고등학교)	4(3.2)	2(2.2)	0(0.0)	
	만19~24세 이하	7(5.6)	18(20.0)	5(17.9)	
	만25~29세 이하	11(8.9)	12(13.3)	0(0.0)	
	만30~39세 이하	29(23.4)	18(20.0)	6(21.4)	
	만40세 이상	72(58.1)	37(41.1)	14(50.0)	

주1: *.05, **.01,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주3: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처리로 인하여 분포값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 특성별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 시기의 차이

-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에 따른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³⁾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에 대하여(1~4), 연령이 낮을수록 은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연령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0~40대에서 은둔기간이 평균 3.63 이상으로 높았던 반면, 50대 3.24, 60대 3.37로 상대적으로 은둔기간이 낮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F=2.708$, $p<.05$)
 - 연령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이 평균 6.87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6.62, 40대가 5.60, 30대가 4.75 등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F=52.414$, $p<.001$)

<표 III-12> 연령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단위: 명, 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p)
은둔 수준 (243명)	20대 이하(a)	20	2.55	0.887	1.137
	30대(b)	32	2.50	0.842	
	40대(c)	55	2.42	0.896	
	50대(d)	90	2.23	0.875	
	60대 이상(e)	46	2.26	0.773	
은둔 기간 (243명)	20대 이하(a)	20	2.65	0.933	2.708* (a<c)
	30대(b)	32	3.63	1.338	
	40대(c)	55	3.69	1.345	
	50대(d)	90	3.24	1.417	
	60대 이상(e)	46	3.37	1.339	
은둔 시작 나이 (242명)	20대 이하(a)	20	3.85	0.875	52.414*** (a<b<c<d<e)
	30대(b)	32	4.75	1.078	
	40대(c)	55	5.60	1.328	
	50대(d)	90	6.62	1.034	
	60대 이상(e)	46	6.87	0.405	

주1: *.05, **.01,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3) 은둔수준에 대하여 '소극적 외출 활동'을 1, '극히 제한적 외출 활동'을 2, '집에서만 활동'을 3, '방에서만 활동'을 4로 간주하였고, 은둔기간에 대하여 '6개월~1년 미만'을 1, '1년~3년 미만'을 2, '3년~5년 미만'을 3, '5년~10년 미만'을 4, '10년 이상'을 5로 간주하였으며, 은둔시작나이에 대하여 '만12세 이하(초)'를 1, '만13~15세 이하(중)'을 2, '만16~18세 이하(고)'을 3, '만19~24세 이하'를 4, '만25~29세 이하'를 5, '만30~39세 이하'를 6, '만40세 이상'을 7로 간주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의 가구원 수(1명, 2명, 3명 이상)에 따른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에 대하여(1~4),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은둔수준의 평균은 2.57,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은둔수준의 평균은 2.46,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은둔수준의 평균은 2.20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281$, $p<.05$),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은둔의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 수에 따른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은둔기간 평균은 3.67로 높았던 반면, 가구원 수 1명인 경우 은둔기간 평균값은 3.18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F=3.162$, $p<.05$), 1인가구가 아닐수록 은둔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 수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1인가구인 경우 은둔나이 평균값은 6.44, 가구원 수 2명인 경우 5.72, 가구원 수 3명 이상은 4.9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5.422$, $p<.001$),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표 III-13> 가구원 수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단위: 명, 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p)
은둔 수준 (243명)	1명(a)	131	2.20	0.817	4.281* (a<c)
	2명(b)	61	2.46	0.886	
	3명 이상(c)	51	2.57	0.878	
은둔 기간 (243명)	1명(a)	131	3.18	1.339	3.162* (a<b)
	2명(b)	61	3.67	1.399	
	3명 이상(c)	51	3.51	1.317	
은둔 시작나이 (242명)	1명(a)	131	6.44	0.970	25.422*** (a>b>c)
	2명(b)	61	5.72	1.392	
	3명 이상(c)	51	4.98	1.732	

주1: * $<.05$, ** $<.01$, ***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독거여부에 따른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에 대하여(1~4) 독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일 경우 은둔수준 평균값은 2.20인데 반해, 2인가구 이상일 경우 은둔수준 평균값은 2.5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2.832$, $p<.01$) 상대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일수록 은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독거여부에 따라 은둔의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인 경우 은둔기간 평균값은 3.18인데 반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은둔기간 평균값이 3.60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t=-2.436$, $p<.05$)
 - 독거여부에 따라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를 살펴본 결과, 은둔형 외톨이가 홀로 거주하는 경우 은둔시작나이 구간 평균값이 6.44인데 반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은둔시작나이 구간 평균값이 5.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임($t=6.095$, $p<.001$)

<표 III-14> 독거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단위: 명, 점)

변수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p)
은둔수준 (243명)	1인가구	131	2.20	0.817	-2.832**
	2명이상	112	2.51	0.880	
은둔기간 (243명)	1인가구	131	3.18	1.339	-2.436*
	2명이상	112	3.60	1.359	
은둔시작 나이(242명)	1인가구	131	6.44	0.970	6.095***
	2명이상	112	5.39	1.591	

주1: * $<.05$, ** $<.01$, *** $<.001$

주2: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의 수준, 즉, 은둔의 정도에 대하여(1~4)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chi^2=7.984$, $p<.05$)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가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 비해 은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은둔의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은둔하기 시작한 나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chi^2=9.477$, $p<.01$)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은둔시작 나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정부지원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분석

(단위: 명, 점)

변수	집단	빈도	평균순위	χ^2
은둔수준 (243명)	지원(a)	125	119.22	7.984* (b>c)
	미지원(b)	90	133.98	
	모름(c)	28	95.88	
은둔기간 (243명)	지원(a)	125	122.65	5.375
	미지원(b)	90	129.44	
	모름(c)	28	95.16	
은둔시작 나이 (242명)	지원(a)	125	133.69	9.477** (a>b)
	미지원(b)	90	106.44	
	모름(c)	28	115.91	

주1: Kruskal-Wallis 검정 및 사후분석(Tukey) 실시

주2: * $\leq .05$, ** $\leq .01$, *** $\leq .001$

주3: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4)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나이 간의 관계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하게 된 기간, 은둔을 시작하게 된 나이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은둔기간은 은둔하기 시작한 나이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r = -.244$, $p < .01$), 은둔수준은 은둔기간, 은둔시작나이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표 III-16> 상관관계분석

(단위: 명, 점)

구분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나이
은둔수준	1	.	.
은둔기간	0.061	1	.
은둔시작나이	-0.123	-.244**	1

주1: * $< .05$, ** $< .01$, *** $< .001$

주2: '은둔수준'과 '은둔기간'은 243명, '은둔시작나이'의 경우 결측치로 인해 242명을 대상으로 분석

5) 은둔기간 및 은둔시작나이 영향요인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시작나이(은둔하기 시작하게 된 나이)가 은둔기간(은둔 생활을 하게 된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고, 약 20.4%의 설명력으로 나타남($F=4.886^{***}$, $R^2=.204$, $adjR^2=.162$)⁴⁾
 - 은둔시작나이는 은둔생활기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beta=-.417$, $p<001$) 은둔시작나이가 높아질수록 은둔생활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 학력, 거주유형, 생계책임, 정부지원을 통제변수로 확인한 결과, 연령은 은둔생활기간과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인 반면, 정부지원 여부는 은둔생활기간과 유의한 부(-)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에 비해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은둔생활기간이 길게 나타남
 - 정부지원 여부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비해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 은둔생활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원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정부지원 여부를 인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은둔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I-17> 은둔생활기간 영향요인

독립변수		B	S.E.	β	t(p)	VIF
(상수)		5.204	0.531		9.802***	
성별(남성=ref.)	여성	-0.298	0.202	-0.092	-1.477	1.114
연령 (30대이하=ref.)	40대	1.145	0.272	0.354	4.212***	2.028
	50대	0.952	0.296	0.339	3.215**	3.200
	60대 이상	1.293	0.360	0.371	3.592***	3.061
학력(중졸=ref.)	고졸	-0.306	0.200	-0.111	-1.526	1.528
	대졸 이상	0.054	0.264	0.015	0.206	1.443
동거가족(독거=ref.)	가족 등과 함께 거주	0.078	0.246	0.029	0.318	2.357
생계책임(본인=ref.)	부모 및 가족	0.423	0.250	0.156	1.691	2.442
정부지원(지원=ref.)	미지원	-0.090	0.188	-0.032	-0.479	1.287
	모름	-1.026	0.274	-0.242	-3.745***	1.198
은둔수준		-0.057	0.101	-0.036	-0.560	1.182
은둔시작나이		-0.407	0.082	-0.417	-4.975***	2.022

$F=4.886^{***}$, $R^2=.204$, $adjR^2=.162$, $D-W=1.403$

4) 유의한 회귀모형에서 D-W값이 2에 근사하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음(VIF<10)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은둔의 정도), 은둔생활기간(은둔하게 된 기간)이 은둔시작나이(은둔하기 시작하게 된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약 55.4%의 설명력으로 나타남($F=23.672^{***}$, $R^2=.554$, $adjR^2=.530$)⁵⁾⁶⁾
 - 은둔생활기간은 은둔시작나이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beta=-.234$, $p<001$), 은둔생활기간이 길수록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 학력, 거주유형, 생계책임, 정부지원을 통제변수로 확인한 결과, 연령은 은둔 시작 나이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인 반면, 동거가족 유무와 정부지원여부는 은둔시작나이에 유의한 부(-)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에 비해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은둔시작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거가족여부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비해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은둔하기 시작한 시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beta=-.195$, $p<01$)
 - 정부지원여부의 경우, 정부지원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비해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은둔시작나이 영향요인

독립변수		B	S.E.	β	t(p)	VIF
(상수)		5.288	0.336	.	15.722	.
성별(남성=ref.)	여성	0.221	0.155	0.067	1.432	1.115
	40대	1.380	0.196	0.416	7.028 ^{***}	1.797
	50대	2.189	0.182	0.761	12.051 ^{***}	2.047
	60대 이상	2.448	0.233	0.685	10.506 ^{***}	2.182
연령(30대이하=ref.)	고졸	0.216	0.154	0.077	1.406	1.531
	대졸 이상	0.383	0.201	0.100	1.905	1.421
학력(중졸=ref.)	가족 등과 함께 거주	-0.544	0.186	-0.195	-2.931 ^{**}	2.273
동거가족(독거=ref.)	부모 및 가족	0.223	0.192	0.080	1.159	2.458
생계책임(본인=ref.)	미지원	0.031	0.144	0.011	0.215	1.289
정부지원(지원=ref.)	모름	-0.691	0.211	-0.159	-3.265 ^{**}	1.215
은둔수준		-0.057	0.078	-0.035	-0.739	1.181
은둔생활기간		-0.239	0.048	-0.234	-4.975 ^{***}	1.134

$F=23.672^{***}$, $R^2=.554$, $adjR^2=.530$, $D-W=2.021$

- 5) 유의한 회귀모형에서 D-W값이 2에 근사하여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었고,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음(VIF<10)
- 6) 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생활기간, 은둔시작나이가 은둔수준(은둔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회귀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제3절 결론

■ 요약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 사회·경제적 상황,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현황,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봄
 - 여성에 비해 남성 비율이 높고 중고령층 및 고졸 이상 학력자 분포가 높았음
 - 홀로 거주하는 응답, 본인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 한편, 정부 지원 대상이라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수, 보성, 순천, 목포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성, 순천, 해남의 경우 남성과 여성 비중이 차이가 컸으며, 연령 면에서 50대 이상 은둔형 외톨이가 보성 및 목포에서 60% 이상으로 다수가 분포되어 있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살펴봄
 - 집을 벗어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34.2%, 편의점 방문 등 필수적 행위를 위해 제한적으로 외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스스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는 8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둔하게 된 기간은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은둔하기 시작한 시기는 만 40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은둔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계기, 은둔시작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특성별 차이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던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은둔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대체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응답 분포가 높았으며, 그 중 30대 이상은 정신적 어려움 외 대인관계에도 동일한 분포의 응답률을 보였고, 20대 이하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응답한 분포가 타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난 점, 그리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 또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임

- 학력의 경우 모든 학력 구간에서 만 40세 이상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은둔 시작 시기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원 수 및 거주유형별로 보면, 모든 가구원 수 구분에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은둔의 원인으로 본 경우 외 분포의 차이가 있었고 은둔하기 시작한 나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은둔형 외톨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상 구분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은둔수준, 은둔이유, 은둔 시작 나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 비해 부모에게 있는 경우 은둔수준이 다소 높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정신적 어려움 외 실직에도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본인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 40대 이상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음
- 정부지원여부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이유, 은둔시작나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특성별 정도의 차이를 살펴봄
 - 연령에 따라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에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둔기간이 낮아지는 경향, 은둔시작시기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 수에 따라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에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은둔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어질수록 은둔시작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독거여부에 따라서도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에 차이를 보였으며 1인 가구일수록 은둔의 수준이 낮고, 은둔기간이 짧으며, 은둔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은둔수준, 은둔시작시기에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가 미인정한 경우에 비해 은둔수준이 높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은둔시작 나이가 높게 나타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 간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봄
 - 은둔시작 나이는 은둔생활 기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시작 나이가 높아질수록 은둔생활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은둔생활 기간은 은둔시작나이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생활기간이 길수록 은둔하기 시작한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특성 현황으로 볼 때,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고령자 은둔형 외톨이 대상 세부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지원 여부 미지원 및 모른다는 응답이 4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은둔형 외톨이 스스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의 포함 여부에 대해 알 수 있고 정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활동 결여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정책 홍보 시스템과는 다른 형태의 조치 방안이 요구되며 이는 고령층과 같은 연령대를 고려한 접근방식에서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중 은둔의 정도를 볼 때, 스스로 집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운 정도로 보이는 응답자가 8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하게 된 계기 중,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응답한 분포가 타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난 점, 30대 이상은 정신적 어려움 외 대인관계의 실패에서도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연령대별 은둔하게 된 주된 계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 구간에 관계없이 만 40세 이상 중년층에서 은둔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교, 대학을 졸업할 시점 직후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 분포가 높았던 점으로 볼 때 재학 중 어떠한 경험들이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가구원 수별 차이에서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즉 홀로 살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은둔 시작 연령이 낮은 응답의 분포가 많았고, 1인 가구의 경우, 만 40세 이상에서 은둔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66%를 상회하여 가구 내 가족 혹은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중년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생계책임별 차이에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 본인에게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은둔수준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여 생계 책임을 의존할 대상이 있는 경우 은둔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외 실직을 은둔의 계기로 본 응답 비율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에게 생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정신적 어려움 외 실직과 같은 소득과 직결되는 사유로 인해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시 생계비 지원 관련 정책과의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만 40세 이상이 되어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67.2%로 높았고 아버지에게 생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인 초기(만 19~24세)에 은둔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본인 외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은둔하게 되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부지원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하게 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부지원 정책을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은둔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임. 정부지원 여부에 대해 미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특성별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 차이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둔기간이 낮아지는 경향, 은둔시작 시기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은둔시작 연령이 올라가는 경향, 1인 가구일수록 은둔의 수준이 낮고 은둔기간이 짧으며, 은둔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을 방조하지 않도록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수준, 은둔기간, 은둔시작시기 간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은둔의 기간은 그 시작시기와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 상황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제4장

은둔형 외톨이 육구조사 및 심층면접

제1절 심층면접 개요

제2절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파악 및 분석

제3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육구파악 대상자 심층면접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육구파악 전문가 집단면접

제5절 결론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4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욕구조사 및 심층면접

제1절 심층면접 개요

1) 조사대상

■ 배경

- 본 연구는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내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함
-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일 뿐,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축적된 자료와 연구가 부족
- 사회적·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조차 없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2년 6월에 조사하였던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병행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조사대상자 선정

-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은둔형 외톨이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규모와 특성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자이므로 매우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 실제로 재가 방문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소개받을 수 있었으며 전라남도 각 지자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을 수 있었음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주변인들과 사회복지사의 소개, 관계 기관인 전라남도의 협조를 받은 후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거쳐 선정
- 연구설계 초기에는 주변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이 많았으며, 해남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았음.
-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70대까지 폭넓은 연령분포로 표집

- 특히, 도시의 경우 20대의 참여가 높았으며 20~40대의 연령대가 높은 참여를 나타냄
- 참여자의 선정은 연령과 성별, 지역, 은둔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이나 은둔기간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할 만큼 의도된 표집은 할 수 없었음

■ 연구참여자 선정

- 연구주제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를 수행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등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를 눈덩이 방식으로 수소문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받아 선정 진행

2) 조사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은둔 외톨이의 사회재진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은둔형 외톨이라는 특성 때문에 누구나 예상하듯 접근과 실태조사가 어렵고 정확한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가짐
-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임
- 따라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 은둔기간, 은둔계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현재 3개월 이상 은둔하고 있거나 과거에 은둔한 경험이 있는' 조건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만 있으면 연구참여자로 선정함

3) 조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인 은둔형 외톨이는 그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나 노출을 대단히 꺼리므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1:1로 심층면접을 진행
-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줌희의 형식을 통해 논의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으므로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
- 은둔형 외톨이 경우에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 심층면접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각자의 집이나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
- 주말이나 야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심층면접을 진행
- 또한, 전문가의 경우 초점집단면접은 영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짐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루어짐
- 전문가 영상회의를 3차에 걸쳐 이루어짐
- 1차 전문가 영상회의는 2023년 2월 28일에 이루어졌으며 2차 전문가 영상회의는 2023년 3월17일, 3차 영상회의는 3월 31일에 이루어짐
- 자료수집방법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경우에는 1:1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짐
- 한 명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일부 참가자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동행 하에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2~3번의 만남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시간에 오지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면접자도 여러 명이 있었음
- 전문가의 경우에는 영상회의가 약 1~2시간이 소요되었음

4) 조사내용

- 주요 면접질문은 대상자의 신상에 관련된 질문과 평소 외출정도, 은둔하게 된 계기, 은둔 시기, 일상생활 활동,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및 대인관계,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일, 심리적 정서적 문제와 신체 건강상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연구자와 관계 전문가에 대한 주요질문은 연구경험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실태, 원인, 필요한 사회적 대책 등에 대한 비구조화된 질문을 주로 다룸
-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은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조사자가 면접 후 녹취파일 및 대화 중에 작성
-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가 있는 진술들을 찾고 그 가운데서 유사한 진술들을 모아 범주화
- 또한, 범주들끼리 유사한 것은 더 큰 범주로 묶어 각각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도출
-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는 각자 소속된 기관에 따라 특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전문가들 간에 특별히 논쟁적이거나 다양한 의견보다는 정제되고 일관된 의견이 많아 진술문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음
- 연구수행을 위한 윤리적 고려는 연구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또한 면접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원하지 않으면 면접이 중단될 수 있음도 사전에 고지하고 자필서명으로 동의를 받음
- 연구진은 비심판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연구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호화함

제2절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원인 파악 및 분석

1) 은둔 당사자 심층면접 참여자

- 은둔당사자 및 가족 참여자는 총 21명으로 남자가 15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19세에서 59세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총 은둔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으로 조사되었음
- 연구 참여경로는 주변 지인 및 가족, 요양보호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나머지는 지자체를 통해 전달받아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IV-1> 심층면접 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은둔기간	참여경로
당사자A	여	31세	13년	가족
당사자B	남	19세	3년	가족
당사자C	남	24세	4년	주변지인
당사자D	남	26세	8년	가족
당사자E	남	38세	10년	요양보호사
당사자F	남	50세	7년	요양보호사
당사자G	남	51세	20년	주변지인
당사자H	여	30세	1년	가족
당사자I	남	47세	8년	가족
당사자J	남	19세	4년	가족
당사자K	남	46세	15년	요양보호사
당사자L	남	28세	4년	주변지인
당사자M	여	23세	7년	주변지인
당사자N	남	49세	3년	요양보호사
당사자O	여	47세	7년	주변지인
당사자P	남	54세	1년	전남도
당사자Q	남	54세	20년	해남군
가족 R	여	43세	10년	전남도
당사자S	여	45세	10년	전남도
당사자T	남	55세	3년	전남도
당사자U	남	59세	3년	전남도

2) 은둔 당사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 은둔 생활을 하게된 시점과 계기

- 은둔형 외톨이 대부분은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과 사업 실패, 이혼, 가정 불화 등을 경험하고 난 이후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하게 되었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 가는 것 이외에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당사자A)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3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게임하는게 재미있어서 집에서만 지내도 평서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내며...(당사자B)

“사업 실패 후 일이 없어 막노동하다 허리를 다친 후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솔로 지내다가....(중략).....현재는 .” (당사자 J)

“아내와 이혼 후 처음 은둔생활을 시작되었고,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까지 심해져....(중략)” (당사자 P)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은둔생활이 시작되었으며, 그래도 서울에서 정착을 희망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귀향과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불화까지 겹쳐...” (가족 R)

“40대 후반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면서부터 은둔 생활이 시작 되어 현재까지...” (당사자 S)

-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 그 이후 은둔생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음

“약간 폭력 같은 것도 있었죠. 제가 남들보다 조금 둔한 것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게, 행동도 둔하고, 냄새도 둔하고 전체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둔했던 것 같아요.” (당사자 B)

“외톨이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친구가 거의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당사자 C)

“고등학교 때 친구와 갈등으로 왕따를 당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사자 M)

-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부모님의 엄격하고 과도한 간섭, 권위적인 모습과 강요가 싫었고, 대화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시하고 소통하는게 너무 싫었어요.” (당사자 J)

■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 주변을 늘 경계하고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을 매우 꺼리는 특성이 있었음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D)

“대인기피증까지 있어 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 여기 오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고.....” (당사자 M)

- 대인관계를 통해 경험한 상처는 자신감을 저하시켰고, 그 결과 주변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던 것으로 보임

“대인관계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인해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당사자 N)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대인관계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당사자 I)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사람만남이 없어지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보니 자신감도 없어 지고...” (당사자 G)

“외출자체가 싫고, 사람보기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 내 자신에게 화가나고 자신감도 저하되고...” (당사자 E)

“가족들과도 단절되고 이웃과 왕래도 전혀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당사자 Q)

-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었음

“일하다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그 후로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장 등의 문제가 맘대로 되지 않아 화도 나고...” (당사자 E)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빛이 불어나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고..” (당사자 F)

-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음

“일하다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그후로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장 등의 문제가 맘대로 되지않아 화도 나고..” (당사자 H)

“내 상태를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져 받을 스트레스도 싫고, 그런 사실을 아는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시각들도 부끄럽고...” (당사자 K)

■ 은둔 생활이 지속된 기간

- 은둔 생활을 시작 후 간헐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오래 가진 못했고 활동기보다는 은둔기간이 더 길어져 만성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음

“가끔 먹을 것을 사기위해 주변 마트 장보는 것 이외에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지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당사자 H)

“20대 초반부터 4년 3개월 정도 우울증으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주변인들과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당사자 L)

“20대때 7년 정도 은둔 생활이 지속되었으며 밖을 나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기력하여 집에 있는게 편하고 좋아 은둔기간이 늘어났으며 ...” (당사자 O)

“16살때부터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 집에서만 지냈어요. 외출도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하고...” (당사자 M)

“중3때부터 게임하는게 재밌어서 학교가는 것 이외에는 거의 게임만 해요” (당사자 M)

“30대 초반에 시작된 이런 생활이 지금까지 지속하는 내 자신이 싫고 사회생활이 두려워 집에만 있게 되고...” (당사자 K)

“젊었을 때부터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외출은 이웃 주민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주로 외출 하며,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죠...” (당사자 Q)

은둔 생활 이전의 삶

- 은둔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사람도 있었고 별문제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례도 있었음. 그러나 이혼과 사업 실패,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니 어려워진 사례가 많았음

“친구들하고 등학교도 함께 하고 방과 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기도 하였는데...” (당사자 A)

“요리하고 음식만드는게 좋아 서울에서 이자야키 주점도 하였고 일본에 가서 알바하면서 일본음식도 배우고...” (당사자 I)

“사업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모임들도 많고, 주말에도 바쁘게 살았는데....지금은 사업 실패 후...” (당사자 N)

“대학교 졸업 후 우체국 근무하였으며...” (당사자 Q)

“20대 때는 회사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고,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을 하며 생활을 했어죠...” (당사자 S)

“고교 졸업 이후에 농사나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였으며...” (당사자 T)

- 반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사례도 있었으며 컴퓨터 게임 중독,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도 있었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격상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이후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 C)

“게임 중 채팅 대화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의 전부이고 인터넷 게임 리니지게임을 하다 보니 취업 활동도 힘들고...” (당사자 D)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고 우울하고 나쁜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 I)

제3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대상자 심층면접

■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 은둔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음주문제, 흡연 문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생활을 위해 가끔 일하러 나가긴 하지만, 허리를 다쳐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당사자 E)

“빛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항상 우울하고 불안해요...” (당사자 F)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고 힘들어요...” (당사자 H)

“엄격한 부모님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대화도 안통해요...” (당사자 J)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하고, 항상 불안해요...” (당사자 P)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고, 무기력하고 자꾸 화가 나고...” (당사자 N)

“얼마 전에 새벽에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걷자 그렇게 걷지 말라는 어머니 말이 듣기 싫어 혼자 머리채를 잡아 뜯고 소란을 피운 적도 있고...” (가족 R)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만 먹으면 폭력성이 나타나고,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감이 자주 엄습해오고...” (당사자 T)

“우울증 때문에 사회활동이 힘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고.....” (당사자 U)

-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음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대화도 거의 없구요, 핸드폰만 봐요...” (당사자 A)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게임만 하고 모임이나 가족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사자 D)

“가끔 왔다가는 사촌 동생하고만 2달에 한번 대화를 하고 주변인들과는 거의 대화 자체가 없어요...” (당사자 E)

“가족과의 모임도 잘 안가요. 그렇다보니 가족과 대화도 거의 안하는 것같고..” (당사자 G)

“사람들을 만나는게 두렵고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대화도 단절되고...” (당사자 T)

○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함

“할머니와 둘이 생활하는데, 할머니를 의존하게 되고 할머니가 안계시면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당사자 B)

“어머니 집에 살면서 생활을 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 I)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 R)

○ 폭음이 반복되기도 하고 흡연량도 많아지기도 함

“막노동하다 허리를 다친 후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잊기 위해 술만 마시는 것 같아요.” (당사자 E)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것 같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당사자 F)

“게임을 하면서 거의 담배를 물고 있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거 같아요” (당사자 G)

“월 15회 이상 술을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당사자 N)

○ 감정 기복을 비롯한 폭력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발생하기도 함

“게임이 잘 안되거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화가 나요..” (당사자 C)

“몸이 안좋다 보니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자꾸 화가 나고 이렇게 살기도 싫고..” (당사자 E)

“게임을 하다보면 자주 감정 변화가 일어나고 충동적으로 변해요...” (당사자 J)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화가 자주나고 분노 조절이 안되요...” (당사자 N)

“평소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화가 나면 머리채를 잡아 뜯고, 오랜 은둔형 생활로 가족과의 마찰이 잦고 그렇다보니 폭력성과 유야적인 행동도 나오고...” (가족 R)

“은둔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폭력적인 성격을 자주 보이고...” (당사자 T)

- 은둔형 외톨이들은 심리적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담배도 자주피게 되고, 게임을 하다보니 사람만나는 것도 없어지고, 내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가끔 자살 충동도 있어요.” (당사자 G)

“한번은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와 술을 먹고 잔 적도 있어요..” (당사자 N)

- 계속되는 무기력함과 좌절감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보니 자주 죽음을 생각하게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희망도 없으니...(중략)....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멎해요.” (당사자 C)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점점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희망도 안보이고 무기력해지고....” (당사자 H)

- 은둔형 외톨이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 불규칙한 생활 패턴(식사, 수면)과 게임이나 핸드폰에 몰두하고 있었음

“밥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게임해요. 레벨업을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때가 있어요.” (당사자 G)

“이들간 쪽잠을 자면서 게임한 적도 있고, 식사는 하루에 한 끼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중략)...아침인지 저녁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당사자 G)

“게임을 하다 날을 새운적이 많아요. 어제도 게임하다가 날을 새웠는데요...잠시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당사자 H)

■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나, 개인 성향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은둔 생활 탈출에서 실패하고 이후에는 은둔생활이 더욱 견고해 지는 양상임

“이런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도 참여도 했는데...(중략)...반복되는 생활들과 생각이 안좋은 쪽으로 나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사자 I)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반복되는 실패로 대인관계에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당사자 N)

“현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진행중에 있어요. 미흡하지만 외부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구요....” (당사자 Q)

“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가족 R)

- 취업이나 진학을 시도하였으나,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부적응의 반복이 은둔생활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됨

“생계유지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한적이 있는데, 두달을 못하고 포기했어요” (당사자 H)

“경제활동을 위해 여러군데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면접도 떨어지고...” (당사자 L)

“대학을 진학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않고, 늘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당사자 M)

■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구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가 있기도 했음
- 또한, 외로움 느끼는 이들도 있었으며 다가가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경험했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발생해 주저하고 있었음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외로워요....” (당사자 A)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싫어요...” (당사자 L)

“상담도 받아보고 싶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학교를 가려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대인 공포와 우울감 등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당사자 M)

-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렇게 말 시키는 것도 싫고 그냥 가만히 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A)

“내 자신이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회생활이 두려워요.” (당사자 K)

■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이들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용돈 좀 주세요...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D)

“기초수급자 신청했는데....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현금뿐만아니라 옷이나 가전제품(세탁기 등)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E)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활동비 지원을 해주세요...” (당사자 F)

“당연히 소득 충족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요...” (당사자 H)

“그냥 다른 것보다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K)

“현재 7개월 실여급여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요..” (당사자 O)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당사자 L)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을 해줬으면 합니다.” (가족 R)

“현금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U)

-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는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당사자 I)

“대인관계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힘들어요.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꾸준한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당사자 N)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안부살피기와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Q)

-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은둔생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외에도 은둔형 생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될 것이라고 응답함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나같이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라고 나름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 A)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O)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이든...” (당사자 L)

“저도 은둔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으며, 현재는 취업등의 활동을 통해 벗어났지만 지금도 가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지속적인 방문상담이나 멘토 프로그램, 성공사례 등을 공유 했으면 좋겠구요, 또한 이런 분들의 모임 등의 활동이 있었으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 O)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욕구파악 전문가 집단면접

1) 참여 전문가

- 전문가 참여자는 총 5명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 전남지역에 관련 연구와 사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종사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전문가, 은둔당사자의 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실무자,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 활동가 등 인접 분야 사업수행경험자도 포함시켜 연구주제와 대상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함
-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회의를 진행하였음
- 참여 전문가는 총 5명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V-2> 참여 전문가 정보

연구참여자	성별	소속	직위
전문가A	백수*	초당대학교	교수
전문가B	신봉*	더나눔학술재단	이사장
전문가C	김정*	충신대학교	교수
전문가D	정수*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문가E	용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

2) 전문가 회의(FGI) 내용

- 지난 6월 전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3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됨
-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실태에 관한 진술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한 의견이 많았음
- 1차 전문가 면접 및 회의는 2023년 2월 28일에 진행하였음
 - 연구개요 및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 논의
 -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각 단계에서의 연구 진행에 대한 논의
 - 은둔형 외톨이 관련 현장 이슈 및 경험 나눔
- 2차 전문가 면접 및 회의는 2023년 3월 17일에 진행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 심층면접 중간결과 요약 보고
 - 온라인 상담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3차 전문가 면접 및 회의는 2023년 3월 31일에 진행하였음
 - 지난 회의에 제의한 의견 기본계획에 반영 설명
 - 은둔형 외톨이 심층면접 의견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틀 논의
 - 기본계획에 반영 시 우선순위 사업이 제한적이었을 때 최우선사업에 대한 논의

■ 은둔 문제에 대한 기존 체제의 한계점

- 전문가들은 은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다들 인식함
-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지원체계나 청년지원체계로는 은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음
 -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에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없다는 문제를 지적함
 - 당사자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지적됨
 -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는 더욱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당사자와 가족들의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접근과 발굴이 어려움
 -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특성이 있음
 - 그들에 대한 접근과 발굴이 어려워 그나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당사자는 만나기가 힘들고 스스로 찾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부모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복잡하고 민감해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임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으며 은둔형 외톨이와 접촉해 본 결과가 은둔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은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임
 -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을 해야 하며, 단기간 단순하게 다루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데 동의를 표함
- 원인이 다양하고 층위가 다양함
 - 기존 복지기관이나 청년·청소년 기관 등에서 은둔 문제를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은둔하는 연령층이나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말함
 - 기존 체계상의 기관들은 연령범위를 규정하거나 문제의 특성 등을 통한 명확한 사업 대상과 신청주의 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어 융통성이 없는데 반해 은둔하는 청년들의 층위가 다양하고 은둔하는 원인도 다양하여 기존 서비스 체계와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임

■ 은둔 특성에 맞춘 접근과 대책

- 전문가들은 경험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라포 형성
 - 은둔하는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
 - 외출을 꺼려하나 온라인에서 매우 자유로운 젊은 층은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친해지고 싶어함
 -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상담자나 방문자가 익숙해진 후 만남이나 소통이 이루어져 라포 형성을 통한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 마련
- 가르치고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결정 존중
 -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와의 접촉 경험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고 억지로 끌어내고 바꾸려고 하는 방식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함
 - 감수성을 높게 가지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접근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온라인 찾아가는 서비스
 - 지속가능한 상담체계(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결합 형태의 상담프로그램) 마련
 - 온라인을 통한 다가갈 수 있는 공간 마련
 - 부모지원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센터 운영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의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있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센터가 필요
 - 메타버스를 활용한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
- 상담과 지원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인 만남과 관심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많은 지원들이 단기적인 것이어서 효과가 반감됨
 - 은둔형 외톨이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청(소)년 시기의 조기 발견

- 전문가들은 어느 연령대나 또 누구나 은둔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필요
- 은둔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
- 소요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많이 은둔에 돌입하는 연령대나 비교적 은둔의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 10대 청소년시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에 초점
- 학교 교육에 은둔형 외톨이 방문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이들에 대한 향후 모니터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능

■ 가족(부모)에 대한 지원

-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
- 당사자들에게 접근이 어려워 그 가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
- 가족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간접적으로라도 서비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예방과 조기 발견의 차원에서도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매우 중요
- 자조모임을 통해 은둔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위로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마련

■ 전달체계(전담기구)

-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 체계들에 은둔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라고 한다면 업무가 가중되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전담해서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함
- 단일한 전담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
- 전담기구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층위의 은둔 문제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심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순차적 사회 적응 프로세스 제공
 - 메타버스 안에서 24시간 상담근무자를 배치한 프로그램 개발
 - 대화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인식개선

- 자발적 은둔형 외톨인지 타의에 의한 은둔형 외톨인지 파악이 필요
- 이들의 삶도 하나의 세계로 인정해주는 시각에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은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도 인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의 경우 특정 분야의 모임을 통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와 연결
- 우리도 이들이 사회 참여를 위해 스스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행사 발굴 필요

제5절 결론

■ 당사자 심층면접조사

-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이었으며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이 많지 않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매우 열악
- 이러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주변인들 간의 갈등으로 은둔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을 은둔생활을 하며 주로 억제 혹은 억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것으로 판단됨
- 2,30대의 경우 억압된 부정적 정서는 주변 상황에 대한 불만족감과 분노들을 온라인 게임과 핸드폰 게임 등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자신의 문제들을 주로 외부로 투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지원, 상황 등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됨
- 은둔 생활중 상담경험이나 정신과 치료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전문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는 방문 상담이라도 이뤄졌으면 하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함
- 취업이나 사회활동 등을 통해 사회 재진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는 있으나 동시에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음
- 이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들 연구참여자 간에 유사한 점과 개별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점이 있음을 발견
 - 첫째, 은둔이라는 눈에 띄는 현상 이전에 모종의 과정이 지속되어왔다는 점과 현재 은둔 자체도 심할 때와 덜 심할 때도 있으며, 은둔은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
 - 둘째, 심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볼 때, 은둔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회복 노력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셋째, 식사와 수면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
- 은둔당사자 참여자들 간의 서로 다른 점은 '은둔하고 있다'는 현 상태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점에서 달랐다고 볼 수 있음
 - 첫째, 은둔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생애주기에서), 은둔하게 된 계기, 총 은둔 기간, 은둔 관련한 상황적 맥락이 제각각 개별적이었음
 - 둘째, 현재 상태도 외출하는 빈도나 가족 또는 외부와 소통하는 정도, 하루종일 하는 일,

- 활동의 정도,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상태, 재정적 여력, 회복하려는 개인적 노력의 형태와 수준, 전체적으로 보아 문제의 심각성 정도 등이 모두 달랐음
- 셋째, 사회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족과의 애착 정도와 지지 정도, 친구 및 다른 사회적 관계의 유지 정도 및 지지 수준, 외부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수혜 여부와 그 효과에 있어서 각기 다른 경험을 갖고 있었음
 -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회복 노력은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고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했음
- 그 외에 일부 참여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취약성 외에 이혼, 취업난, 경쟁의 심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인터넷의 발달 등 은둔하기 쉬운 환경도 은둔상태를 길어지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점이 있었음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은둔은 기존의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임
 - 은둔 문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들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구물의 축적이나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생산되지는 않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나 청년지원체계에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기본적으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고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은둔 문제가 복잡한데다 민감하기까지 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은둔하는 원인이 다양하고 표적 대상자의 층위도 다양해 기존 체계들이 접근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 둘째, 은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함
 -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나오고 싶을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혼자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지를 보일 때 그 즉시, 원하는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단기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상시 개방 운영해야 하며 가르치고 바꾸려 하지 말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함

- 또한, 젊은이들이 온라인과 비대면에 익숙한 점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어도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또래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함
-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당사자에 초점을 두는 대책이 더 중요함
- 셋째, 전문가들은 은둔의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이후에야 겨우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전예방은 사실상 어렵지만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 당사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가장 많이 시작되는 10대와 실제로 은둔에 가장 많이 돌입하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기개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은둔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므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를 통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청(소)년기부터 개입하는 것은 은둔이 장기화되고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넷째, 전문가들은 은둔 문제는 은둔당사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원이 뒤따라야 함
 - 특히, 부모들끼리의 자조모임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위로와 연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인인 기관의 입장에서 부모는 대단히 접근하기 어려운 은둔 당사자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함
- 다섯째,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 문제가 기존 체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 여건들을 감안할 때 기존 어느 기관의 고유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
 - 물론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다양한 기능들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수많은 지역자원과 지역기관들에 대한 조정은 전담기구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역할이기도 함
- 여섯째,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일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비난과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봐도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함.

제5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제1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5장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제1절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1) 전라남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은둔형 외톨이 특성(H.O.L.O.)

■ 사회적 고립 및 장기적 은둔(Hidden)

- 전라남도는 지리적으로 여러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서쪽과 남쪽 양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음
-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는 도시는 물론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은둔형 외톨이 사례발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판단되며 발굴 이후에도 사회복귀까지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노인 또는 여성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 OPH)

-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지방소멸위험 수준이 높고 22개 시군 중 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측됨
 - 이 중 신안은 전국 시·군·구 중 소멸이 가장 빨리 될 지역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 완도(0.541), 함평(0.561), 곡성(0.566), 영광(0.635), 영암(0.642), 보성(0.644), 진도(0.652), 강진(0.664), 해남(0.668), 고흥(0.675), 장흥(0.708) 순임
- 2016년에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1인 가구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해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는 연령이 높고, 홀로 살며, 여성인 경우가 많음
 - 여성 노인의 경우 활동성이 낮고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도 낮아 이들의 사회복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수동적이고 방어적 태도로 인해 지원에 대한 불신과 불응의 어려움이 예상됨

■ 열악한 사회적 자본(Low Social Capital)

- 전라남도는 국내 유인섬의 60%가량이 밀집한 대표적 도서지역으로 복지와 관련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이 열악해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로 꼽힘. 또한, 전남 섬 지역의 고령 인구, 장애인, 1인가구 비율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 및 인력 집중도 및 접근성은 매우 낮아 전반적으로 열악한 보건 및 복지 실태를 보임(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2020)
-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의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경우가 많음(김성아, 2023)
- 따라서,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자본은 비 은둔자는 물론, 타 지역 은둔형 외톨이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신체적, 심리적 및 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역할기능 저하(Out of order)

-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 및 은둔 계기는 주로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45.5%)'이고 다음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40.9%),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움(40.3%)' 순임(서울특별시, 2023)
 - 고립·은둔청년의 43.2%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답변하여 일반 청년(14.2%)의 3배 수준임
-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 역량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직업교육을 받은 일부 고립·은둔 청년들도 단순 사무자동화(OA) 교육(40.6%), 바리스타 등 서비스직 자격증(28.9%) 등 기초적이거나 청년들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연합뉴스, 2023.2.1)
- 특히, 전남지역의 구직자의 50%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 느끼고 있으며(퍼블릭뉴스, 2022. 11. 25), 창출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농림어업·자영업에 치중되어 질이 낮은 일자리는 많지만 구직 희망자가 적어 취업 양극화와 부조화 문제가 심각함(서울경제, 2023. 2. 8)
 - 한편, 은둔형 외톨이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복귀 지원을 해도 이후 지역 내 일자리 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존재함
- 종합하면, 전라남도의 은둔형 외톨이 역시 신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거주지 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로 복귀 시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고립 및 은둔 생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제원이 요구됨

2)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추진체계(H.O.L.O./S.T.O.P.)



[그림 V-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추진체계

■ 비전(VISION)

- 연계하고 포용하는 은둔 없는 전라남도 실현

■ 전략목표(S.T.O.P.)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의 전략목표를 은둔형 외톨이의 네 가지 특성의 각 영문 첫 자로 구성한 홀로(H.O.L.O.) 현상을 정책적으로 멈추도록(S.T.O.P.) 지원하는 정책전략 포함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H.O.L.O.)

- 1) **H** (hidden):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고립되고 은둔함
- 2) **O** (one-person household): 독거 등 사회적 분리 및 고립
- 3) **L** (low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 열악
- 4) **O** (out-of-order): 신체, 정서, 사회적 역할 및 기능 어려움

○ 자조적(Self-help) 지원

- 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으로 바깥 생활을 거부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특성이 강하여 가족 및 사회복지사 등 타인에 의해 방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은둔 종결의 자기 의지가 없다면 다시 은둔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억지로 외부 활동을 유도하거나 방에서 끌어내려다 벌어진 사례가 많으며 억지로 주입된 프로그램으로는 이들의 은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들의 은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가가 라포를 형성하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 이들을 공감해주고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포용적(Tolerant) 지원

- 은둔형 외톨이의 사례 중에서는 은둔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은둔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 한겨레신문, 2023. 5. 24.), 또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일정한 돈이 생기면 다시 은둔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은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재은둔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존재함(연합뉴스, 2023. 5. 14.)

- 이러한 특성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다른 정책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포용적 관점이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의 정책 성과를 질적 측면에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개방적(Open) 지원

- 개인의 은둔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안식처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가족의 은둔 장기화로 가족들 역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까지 정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함
- 또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함

○ 선제적(Preemptive) 지원

- 실제 은둔의 문제가 발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은둔의 원인을 학창 시절의 왕따나 학교폭력, 또는 과거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든다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이미 상당 수준의 은둔이 진행된 대상자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잠재 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 범위도 예방적 영역을 포함함

■ 정책영역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생태체계적 관점을 반영하여 수립됨
 - Bronfen brenner(1979)는 인간발달은 성장하는 유기체와 그 유기체가 거주하는 환경과의 성장과정에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인간발달의생태학 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설명했고 인간을 독립적 유기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고 보았음

- 생태체계관점은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한 방식에는 다섯 가지의 환경체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거시체계(macrosystem), 외체계(ex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미시체계(mi crosystem) 그리고 시간체계(chronosystem)가 있음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은 은둔형 외톨이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부터 전남지역의 문화 환경 및 인식을 포함하기 위해 시간체계를 제외한 거시체계, 외체계, 중간체계, 미시체계로 구분하였음
- 거시체계(macrosystem)는 문화 또는 하위문화 내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내용과 형태가 나타내는 일관성을 의미하는 커다란 체계로써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에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반을 의미함. 또한, 현재의 생태체계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가 변화하고 발달된 후에도 다가올 환경의 모습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거시체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외체계(exosystem)는 개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발달해 가는 개인이 속한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과의 관계를 의미함. 따라서 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외체계 내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중간체계(mesosystem)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미시체계들이 복잡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 관계로 형성됨. 따라서, 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중간체계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을 포함
- 미시체계(Microsystem)는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친밀한 사회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역할과 활동 및 대인관계이며 개인에게 가장 근접한 생태체계적 환경 체계로 간주한 본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미시체계를 은둔형 외톨이 개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 예방교육, 직업훈련 등에 관한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포함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의 정책영역별 중점 추진과제

전라남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4대 영역 34개 세부과제**를 제안함

정책 영역 1

미시체계: 개인 상담, 예방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미시체계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문제 해소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개인 상담, 예방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①은둔예방 프로그램 ②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 ③훈련보조상담 프로그램 ④느린 일경험 프로그램 ⑤은둔서포터즈 양성사업 ⑥은둔지원 실무자 연수프로그램 ⑦이웃돌보미 양성사업 ⑧공동주거 조성 프로그램 ⑨마을키친 조성사업 ⑩사랑방 조성사업 ⑪건강검진 치료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세부추진과제 1

은둔예방 프로그램

■ 목적

-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하도록 전 도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성

■ 대상

- 전 도민

■ 추진배경

- 장기적인 은둔 상황은 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은둔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조기 발견 지원에 중점을 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특성 반영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 공공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등의 실시가 요구됨
- 특히, 주변인들에 의하여 은둔 초기 시기에 진입한 대상에 관한 정보가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즉각 전달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지원 서비스가 요구됨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중장년, 노년층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진입의 발판 마련을 위한 지원이 중요

■ 추진내용

- 가구수별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유관기관 정보전달 체계 구축
 - 전남도는 관내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를 염두에 둔 유관기관 정보, 전달-수집-관리 체계를 구축
 - (공공부문) 학교(학원) 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집배원 등에 의한 은둔 정보 접수
 - (민간부문) 가스검침원, 택배원, 편의점, 병원 등에 의한 은둔 정보 접수
-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접근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발굴 시도,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 (1인 가구) 공공 및 민간에 의한 발견, 유관기관에 정보전달
 - (2인 이상)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정보전달, 유관기관 내방 상담 및 가족프로그램 참여 권고

■ 지원내용

- (지원방법) 관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전남), 전문기관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지원내용) 공공 및 민간 영역 대상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정보 홍보자료(카드뉴스 등) 제작 및 관련 기관 배포
- (담당부서) 복지 담당 부서 등

■ 기대효과

- 도내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굴을 통해 은둔의 장기화를 막고 사회와의 재회 가능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콘텐츠 보완 1식 홍보 10건	콘텐츠 보완 1식 홍보 10건	콘텐츠 보완 1식 홍보 10건
소요예산 (백만원)	-	-	50	50	50

세부추진과제 2

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진입 유도

■ 대상

- 은둔형 외톨이(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누구나)

■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중장년, 노년층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진입의 발판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이 은둔하게 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부정적 경험 (학교폭력, 따돌림, 진학 및 취업실패, 직장생활에서의 불쾌한 경험, 경제적 실패 등)때문임
 - 따라서,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정책적 접근보다는 민간 영역에 의한 공감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해당 영역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1단계: 개별상담) 전문상담사를 통한 초기면담 진행
- (2단계: 심적안정) 유사 경험을 보유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통한 심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맞춤형 지원) 1:1 맞춤형 지원상담을 거쳐 사회진입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시도
 - (공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영위, 신체적 건강관리 방법, 대화 전략
 - 은둔기간, 은둔수준에 따라 사회진입 시기의 차별화 전략
 - * 장기적 은둔 및 은둔 수준이 높은 경우 심적 안정 프로그램 추가지원

- 관심분야에 따라 사회진입 유형의 차별화
 - * (청년) 고등교육기관 진학,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취업 등
 - * (중장년) 중장년 직업훈련프로그램(폴리텍대 등) 연계, 취업 등
 - * (노년) 각종 복지지원정책 안내, 노인일자리사업 등 연계
- (4단계: 사후관리) 재은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활동의 연착륙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진행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지원내용) 도내 은둔형 외톨이 대상 생애주기별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담당부서) 청년지원부서, 중장년 및 고령자 복지 지원부서 등

■ 기대효과

- 도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재진입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및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민 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3회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3회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3회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3회 참여자 10명
소요예산 (백만원)	40	50	50	50	50

세부추진과제 3
훈련보조상담 프로그램
■ 목적

- 은둔형 외톨이가 직업훈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직업훈련기관

■ 추진배경

-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확인되고 이러한 욕구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참여, 대학 진학, 경제활동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남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직자 대상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고용노동부) 사업과의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직업훈련 참여 및 수료율 향상 지원 필요

■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가 직업훈련 참여 중 각종 애로사항 수집 및 심적 안정화 지원, 해당 직업훈련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등

■ 지원내용

- 은둔형 외톨이가 훈련생으로 참여하는 민간직업훈련기관 대상 상담원 인건비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의 훈련 참여 어려움 극복 지원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10명 훈련	10명 훈련	10명 훈련
소요예산 (백만원)	-	-	30	30	30

세부추진과제 4

느린 일경험 프로그램

■ 목적

- 직업훈련 종료 후 사회적 활동에 앞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지원

■ 대상

- 민간 사업장

■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 지원 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 활동 전문상담인력 지원사업’과 ‘인턴사업장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상담 지원을 통한 직업훈련 참여 및 일경험 유도 필요
 - (훈련지원) 전 국민 대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지원, 고용센터 상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력 및 직업 탐색을 거쳐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독려
 - (상담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의한 훈련비 지원 시 ‘훈련장려금’이 동반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지급 대상이 됨.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가 훈련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찰 및 상담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상담원 등을 매칭하여 훈련참여기간 중 일대일 상담(훈련 중 애로사항 청취 후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으로의 전달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턴지원) 직업훈련 종료 후 일자리 연계 시 일경험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사회로의 재진입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인턴사업장 운영사업 추진이 요구됨

■ 추진내용

○ 지자체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대상 인턴 기회를 제공할 사업장 모집 및 운영비용 지원

지원 내용	훈련참여 욕구 파악 및 참여 독려	직업능력 상담 및 직업훈련 참여 결정	훈련 출석률 높이기 위한 심리적 지원	직무현장 on the job training 프로그램
역할	지자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전담상담인력)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및 지자체 상담인력 지원	지자체 (수강기간 전문 상담사 1:1케어)	지자체 (직무수행 현장 일경험 지원 사업비 지원)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중위소득 80% 이하, 월 200만원 (인당 1천만원 한도), 연리 1%, 최대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내 훈련비의 45~85%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 충족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인턴 자리 제공할 참여 사업장 모집·DB화 해당 사업장에 인턴비 지급
주관 기관	지자체(전담상담인력)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지자체(전담상담인력) *(가칭) 훈련보조상담 프로그램	지자체(민간사업장 지원) *(가칭) 느린 일경험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전남도)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및 선발, 사업비 지원
- (사업장) on-the-job training 비용 및 인턴 인건비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은둔 해소 효과의 지속가능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	참여사업장 공모 및 선정	사업장 5곳	사업장 5곳
소요예산 (백만원)	-	-	-	50	50

세부추진과제 5

은둔서포터즈 양성사업

■ 목적

- 은둔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은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지원하여 은둔 경험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극복 및 해소 의지 제고
- 은둔형 외톨이 대상 지원서비스 성과의 극대화

■ 대상

- 은둔의 경험이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경험 인식으로 인해 사회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어 일반적 접근보다는 은둔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은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지원하여 경험의 공감대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기제를 적극 활용 필요
-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21)에서 제안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인력 양성' 내용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담당하는 전남도내 시·군 담당자 대상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성 연수'를 당사자에 대한 방문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즈 양성 연수' 프로그램 제안
- 사회적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운영한 '은둔고수' 발굴 프로그램이 또 다른 은둔형 외톨이의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실험을 성공한 바 있음
 - 이에, (가칭)은둔서포터즈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은둔의 경험 보유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 공감 영역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을 돕는 은둔형 외톨이 재사회화 도우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수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추진내용

- **(방법)** 은둔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 **(선발)** 전문상담사에 의한 적정 대상 참여자 선발
-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서포터즈 양성

■ 지원내용

- **(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내용)** 도내 은둔형 외톨이 대상 은둔서포터즈 양성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프로그램 운영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서비스 성과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역 주민(특히, 은둔경험 보유자) 대상 일자리 창출 효과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참여기관 및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 1식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1식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1식 참여자 10명	프로그램 1식 참여자 10명
소요예산 (백만원)	10	30	30	30	30

세부추진과제 6

은둔지원 실무자 연수프로그램

■ 목적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및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대상

- 전남도 및 도내 기초 지자체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부서 담당자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추진내용

- 연수프로그램 구성
 - 반기별 1회
 - 정책적 지원 사례 공유
 - 공공부문의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 지원내용

- 전남 도내 관련 부서 자체 운영,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 광역지자체 내 은둔지원 실무자 연수프로그램 운영예산 배정
 - 연 1회 토론회 개최비, 우수사례 발표자 포상비 등 포함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	프로그램 개발 1식	참여자 모집 토론회 개최	참여자 모집 토론회 개최
소요예산 (백만원)	-	-	50	30	30

세부추진과제 7
이웃돌보미 양성사업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이웃돌보미’로 선정하여 주위의 유사 특징을 보이는 자를 발굴하여 고립 수준 약화 및 은둔상황 예방

■ 대상

- 경제적 취약계층 1인가구 도민

■ 추진배경

- 중고령층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원이 더 적고 생활 영위 역량이 낮아 고독사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발굴 중요

■ 추진내용

- 중고령층, 저소득층 1인가구를 ‘이웃돌보미’로 선정, 주위에서 은둔 특성이 감지된 자를 특정하여 자자체 관계 부서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
 -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참여자 모집 관련 홍보

■ 지원내용

- **(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내용)** 이웃돌보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웃돌보미 활동비 지원

■ 기대효과

- 이웃돌보미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지형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우리 주위의 유사 특징을 보이는 자의 고립수준 약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연계 실효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프로그램 개발	이웃돌보미 양성 5명	이웃돌보미 양성 5명 은둔대상 발굴 20명	이웃돌보미 양성 5명 은둔대상 발굴 20명	이웃돌보미 양성 5명 은둔대상 발굴 20명
소요예산 (백만원)	30	20	20	20	20

[사례] 곰손카페

- (주관기관) SBS (SBS스페셜 2022년 10~11월 방영, 2022년 이달의PD상 수상)
- (운영목적) 은둔 경험 보유자의 사회적 회복 지원 시도
- (운영방법) 아이디어 기획 -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대상 카페 운영 훈련 - 재사회화 경험 제공 및 회복 지원, 사회적 이슈화
- (세부내용) ① (아이디어 기획) 과거 피렌체에서 전염병을 피해 술과 아이스크림을 팔던 유럽의 '창문형' 가게들, 중국 상하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구멍을 뚫어 제품 서빙하던 2가지 아이디어에 얼굴을 내밀지 않고 일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쿠마노테카페를 조성(일본), 이에 착안하여 동굴에서 나오라는 컨셉으로 곰손카페 프로젝트 서울1호점 오픈
② (모집/선발/훈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은둔경험 보유자 대상 곰손카페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고 최종 4명을 선발, 바리스타 교육 및 서비스 교육 실시, 메뉴 선정에 대상자 참여
- (운영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 원인 등을 4명의 사례를 통해 알리고,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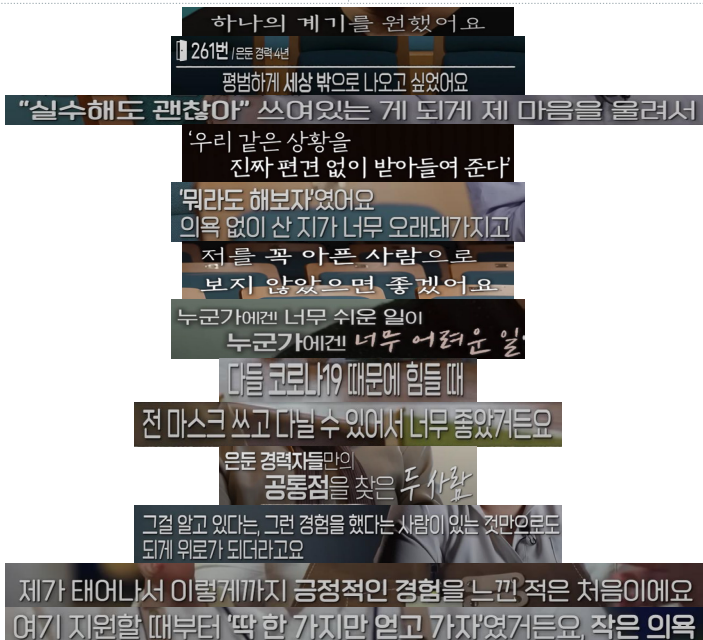
원출처: CBS



원출처: 평파이신문



원출처: DALI채널(YOUTUBE)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3u93Vs_wQ(채널명: DALI(달리 SBS 교양 공식채널))

세부추진과제 8
공동주거 조성 프로그램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일상생활 영위 역량 강화
- 공동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대상

- 은둔형 외톨이 및 1인 가구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대상 후속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곰손카페 방송 출연자) 은둔형 외톨이에게 ‘집’은 안전한 느낌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일상이 되풀이되므로 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늪’과 같은 느낌을 받음)
- 은둔형 외톨이가 체감하지 못하는 시간의 멈춤에 대해 일상생활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은둔생활을 탈피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음
 - 11년차 은둔형 외톨이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곰손 카페 출연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 공동주거(셰어하우스)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보유한 다른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심적으로 안정되고 주위에서 나를 지지하며 이끄는 동료가 있어 은둔생활 극복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음
-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추진한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업인 ‘셰어하우스’ 사업(성북구 지원 연계), 서울시의 ‘1인가구 특별대책’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 대상 공동생활 및 네트워킹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및 네트워크 공간 제공의 필요성과 도내 빈집 정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 (전국에서 전남도 빈집수 최다, 2022년 말 기준)

7) 은둔고립청년 릴레이 인터뷰 내용 중 인용(<https://dudug.kr/interview/?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3511413&t=board>)

<표> 고립 극복 관련 공동주거 운영 사례

사회적기업 주관 세어하우스 운영사업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4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생활) 마음 맞는 친구 및 동료와 함께 생활 • (규칙준수) 규칙적인 식사 습관 형성, 공동 식사 준비, 소통능력 개발 및 사회진출 연습 • (운영방법) 사회적기업(K2코리아인터내셔널) 주관, 서울시 예산 지원(은둔청년지원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안심) 건강돌봄 제공 • (주거안심) 1인 맞춤주택 확대 건립 • (범죄안심) 범죄안심 홈세트 지원 • (고립분야) 고독과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자 경제적 자립 및 사회관계 형성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소셜다이닝(중구), 돌봄SOS센터(성동구), 청년마음건강지원(성북구), 1인가구 관계망 프로그램(강북구), 우리동네 돌봄단(종로구) 등

■ 추진내용

- 도내 빈집 지역 확보 및 지역별 주력산업과의 연계(일자리 창출 등)
 - (예시) 화순군 '농촌빈집 활용사업지원'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백신특구 및 관광산업 등 화순군 특화산업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
- 공동 주거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 기획, 주거 취약 은둔형 외톨이 대상 공동주택 입주 유도
 - 입주자 선발방법(기준 등) 마련
 - 입주 전후 준수 지침(입주 전-워크숍, 입주 후-생활규칙 등) 마련
 - 입주자 주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원내용

- (공동주거 조성사업) 전남도 빈집정비사업으로 전남도내 유휴 공간을 지자체 주도로 공동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며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과 '은둔형 외톨이지원 기본계획'과의 연계
 - (전남도 빈집정비사업) '23년 이후 도비 42억원 포함 총 140억원으로 5년 내 1만 동 정비 계획, 빈집정비 실적우수 지자체 1억 추가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완료)
 - (방안) 빈집정비사업에 은둔형 외톨이 주거공간 지원 및 커뮤니티 구성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논의
 - (부서) 건축개발과, 사회복지부서 등

○ (공동주거 운영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동주거 공간 기획 경험 및 퍼실리테이터를 보유한 사업자 선정
- 공동주거 공간 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필수 참여 규정

* (예시) 식사준비 프로그램, 스몰토크타임 프로그램(매일 5분간 대화), 소모임 참여,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 포함 1인가구 중심 공동 주거 공간을 조성,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연습 유도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2029년 이후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사업계획 수립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공간조성 1건 주거프로그램개발 1건	공간조성 4건 공동주거운영 1건 (참여자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포함)	공동주거 운영 5건	공동주거 운영 5건
소요예산 (백만원)	-	300	300	500	500

세부추진과제 9

마을키친 조성사업

■ 목적

- 삶의 영위에 의식주가 기본인 바 ‘음식’을 중심으로 관계망 형성 유도

■ 대상

- 청년층, 중고령층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도 청년층의 경우 부모 혹은 지인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 배달앱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식습관 불규칙할 가능성
- 중장년층 남성은 은둔 상황 이전 음식조리법을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생활·식습관 개선이 요구되며 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
- 즉, 식사준비 학습을 통한 일상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가구수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및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않고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임
- 함께 음식을 조리하고 함께 먹거나 반찬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방안 제안
 -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는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 혹은 지인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높은 편으로 끼니를 배달앱에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음식조리 방법 학습 유도
 - 중고령층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은둔상황에 돌입하기 이전 조리 방법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영위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 습관 및 식습관 개선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함께 반찬을 공동으로 만들어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활동 유도

■ 추진내용

- (마을키친 공간 조성)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강사인력 지원,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직접 반찬을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게 함

- (소셜디너 프로그램) 함께 음식을 만들어 같이 저녁 식사를 함
- * 반복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외부활동 유도

■ 지원내용

- (도심지역) 수행경험 풍부한 민간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도서산간지역) 수행경험 풍부한 민간단체 선정 혹은 지자체 주관으로 마을회관, 보건소, 우체국, 슈퍼마켓 등지에 해당 공간을 선정하고 조성
- (사업비 구성) 공간조성비,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재료비, 기관운영비 등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영위 능력 강화 및 외부활동 유도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연도별 추진내용(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프로그램 개발 1식	(도심) 프로그램 운영 10회/연 (비도심) 공간조성	(도심) 프로그램 운영 10회/연 (비도심) 프로그램 운영 5회/연	(도심) 프로그램 운영 10회/연 (비도심) 프로그램 운영 5회/연	(도심) 프로그램 운영 10회/연 (비도심) 프로그램 운영 5회/연
소요예산 (백만원)	200	200	300	300	300

[사례]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 (주관기관) 서울시 관악구청
- (운영목적) 1인 가구 소통 공간 조성,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분화된 1인 가구 수요에 맞춤형 대응
- (운영방법) 관내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
- (사업내용) 소통, 자율기획, 소셜다이닝, 취약중장년으로 구분
 - (봉다방)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물물교환, 소모임활동, 무인카페 운영
 - (그린라이프) 반려식물 기르기, 채소 기르기, 관악구 명소 걷기 등
 - (행복로3길)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해소 프로그램
 -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음식조리 및 전달
- (기대효과) 점차 세분화되는 1인 가구 다양한 수요 해소 등

출처: 관악구 보도자료(2023. 5. 30.)

세부추진과제 10

사랑방 조성사업

■ 목적

-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것이 제공되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을 조성 및 제공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외출을 유도

■ 대상

- 은둔형 외톨이 및 1인 가구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및 1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지원 차원에서 빨래방 활용을 통한 외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빨래방과 카페의 혼합 공간을 조성 지원
 - 빨래방과 무인카페, 중고 물품 거래 공간을 함께 조성
 - 해당 공간 내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사회 정보 제공
 - '전남형 마을키친' 인근 지역에 함께 조성

■ 지원내용

- 빨래방+무인카페 공간 운영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바우처 발행 방식 활용

■ 기대효과

- 일상생활 및 휴식 지원을 통한 외부 활동 유도

■ 연도별 추진내용(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공간 조성	100건/월 이용	100건/월 이용	100건/월 이용
소요예산 (백만원)	-	300	200	200	200

세부추진과제 11
건강검진 치료지원사업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대상 건강권을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은둔수준 약화 유도

■ 대상

- 전남도 내 모든 연령의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로 인해 정기적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했을 가능성, 중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도민의 건강권 확보 필요

■ 추진내용

- 내과, 치과 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질병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치료를 받도록 외출을 유도하여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
 - 지역의료원, 내과 및 치과 등 의원급 병원

■ 지원내용

- 은둔형 외톨이 대상 '검진바우처' 구성 및 발행
- 지역 내 내과의원, 치과의원을 선정하여 사업비(검진 및 치료비) 지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하게 선정)

■ 기대효과

-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참여 의원 모집·선정	바우처 지급 (100명)	바우처 지급 (100명)	바우처 지급 (100명)	바우처 지급 (100명)
소요예산 (백만원)	-	300	300	300	300

정책 영역 2

중시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및 플랫폼

중시체계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①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성 ②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성 ③지방 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례발굴 및 관리를 포함하고 있음

세부추진과제 1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성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재원은 전라남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함
- 전라남도과 각 시·군에서는 각 지자체 내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을 통해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수립하여야 함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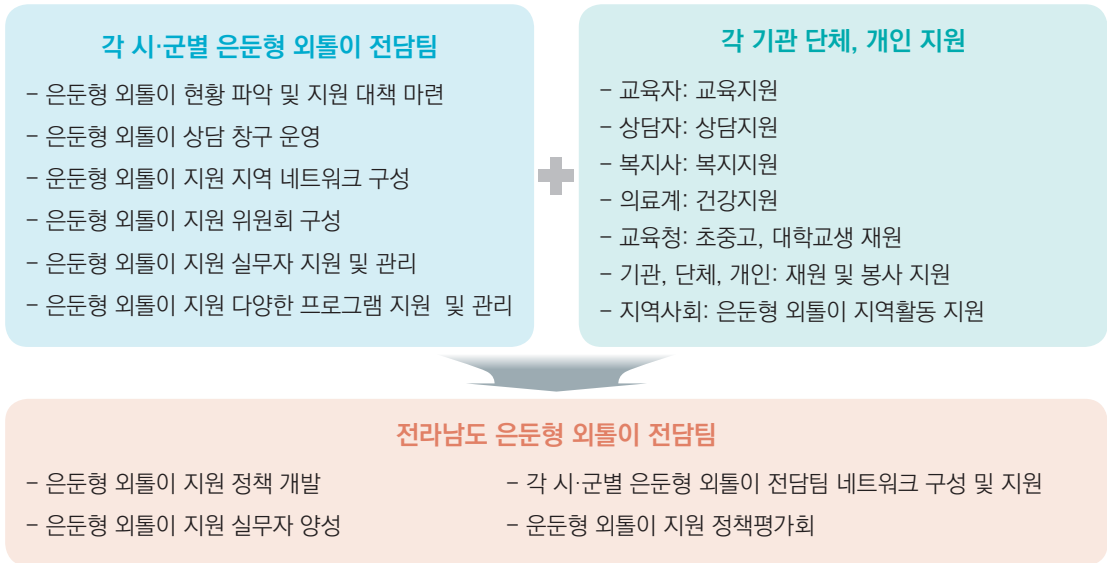
- 직원 및 기부자 등

■ 추진배경

-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에 집중하고 각 시·군이 직접 활동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전라남도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시·군에서는 분기별 보고체계를 구성
-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및 평가회 개최



[그림 V-2]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정책 네트워크

■ 지원내용

- 분기별로 ‘개선 및 평가 회의’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에 노력한 직원 및 기부자 등을 대상으로 포상 실시

■ 기대효과

- 정책 참여자의 정책 참여동기 제고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전라남도 및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구축	전라남도 및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운영, 지역 위원회 네트워크 구성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및 지역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및 지역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및 지역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소요예산 (백만원)	-	10	10	10	10

세부추진과제 2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성

■ 목적

- 전라남도 중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각 시·군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들에 대한 총괄 역할
- 전라남도는 전담팀 내 각 영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시·군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 필요

■ 대상

- 전라남도 및 각 시군

■ 추진배경

-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진행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각 종 사업 및 인식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각 시·군의 은둔형 외톨이 현황 분석 및 각 시·군의 요청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전라남도 플랫폼 구축
 - 각 시·군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파악
 -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책을 실현할 실무자를 양성하여 시·군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관련 고성과자 대상 우수직원으로 발굴 및 시상
- 시군별 플랫폼 구축
 - 각 시·군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및 활동에 총괄 지원
 - 각 시·군 차원에서 전담팀 내에 각 영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전라남도 전담팀과의 소통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 상담 영역 지원
 -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영역에 대해 통계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 차원에서 상담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상담활동 매뉴얼 제작 및 활용을 통해 상담의 효과성을 높임
-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가들과 정기적 모임 또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함
- 은둔형 외톨이 대상 화상 상담 및 집단 상담의 기회 제공으로 은둔형 외톨이 간에 유대감 및 공감 형성으로 문제해결 자신감 고취 기회 마련
- 전라남도 차원에서 상담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 후 전남지역 은둔형 외톨이 상담 분야 정책에 적극 반영

○ 복지 영역 지원

-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해 통계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 차원에서 복지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복지정책 지원매뉴얼 제작 및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지원 체계 구축
-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사 및 봉사자들과 정기적 모임 또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
- 시·군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은둔형 외톨이에서 활동가로의 양성
- 전라남도 차원에서 복지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 후 은둔형 외톨이 복지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

○ 교육 영역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대한 장·단기 계획 수립
-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인터넷 및 게임 등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종 대회 등 운영 계획 수립 및 활용

* (예시: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 대상 지속적 모임을 통해 다시 은둔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강연 또는 자조모임에 발표자 역할 부여, 각급 학교와 기관, 단체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문제해결에 대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 지원

■ 기대효과

- 각 시·군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정책효과 제고
- 시군별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전라남도 전담팀 내 영역별 플랫폼 구성	시·군별 사업 개발 및 연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개발, 고성과자 시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개발, 고성과자 시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 개발, 고성과자 시상
소요예산 (백만원)	50	50	50	50	50

세부추진과제 3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례발굴 및 관리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영역은 광범위하므로 무엇보다 각 시·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상

-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각 시·군에서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각도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은둔형에서 사회적 활동가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함

■ 추진내용

-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도우미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발굴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회를 제공함
- 시·군에 은둔형 외톨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은둔형에서 사회적 활동가로 양성함

■ 기대효과

- 쉽게 발굴할 수 없는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를 효과적으로 발굴 가능
-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대상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활동가 발굴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활동가 단체 구성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관리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관리(계속)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관리(계속)
소요예산 (백만원)	10	30	50	50	50

정책 영역 3

외체계: 가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외체계에서는 주로 ①가족의 공감을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또래 및 은둔 극복자와의 소통을 통한 타인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③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

세부추진과제 1

가족공감 프로그램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은둔형 외톨이를 가족구성원으로 둔 가족, 동거인 간 네트워킹을 유도하여 심적 안정 추구 및 공동의 정책 대안 모색

■ 대상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동거인

■ 추진배경

- 앞서 살펴본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의 소결 내용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에 있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일 수 있음
-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은둔형 외톨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가족, 동거인 간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며 심적 안정화 및 정책 제언 유도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구성 및 운영방안 제언

■ 추진내용

- (경험공유) 은둔형 외톨이 가족을 둔 경험 공유
- (심적안정) 가족의 대처방안의 문제이기보다 사회의 시스템적 요인임을 강조하며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 (협력체계)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 협력관계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운영방안 a) 전남지역 가족센터 및 거점센터('22년 6월 기준 22개소 운영) 중 일부를 활용,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돌봄 프로그램' 내 사회적 고립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지원
 - * 한국은둔형 외톨이지원연대의 전남·광주지역 구성원 컨택
- (운영방안 b) 전남지역 가족센터 및 거점센터 일부를 대상으로 '(가칭)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 혹은 '(가칭)사회적 고립 지원센터'로 선정하여 전문상담원을 포함한 인건비 및 사업비 매칭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족에 대한 심적 안정화 및 대안 모색을 통해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의 재사회화를 위한 서포터즈로 양성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례관리 효과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가족공감 프로그램 사업 계획 수립	가족공감 프로그램 개발	가족공감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가족공감 프로그램 보완 및 프로그램 확대	가족공감 프로그램 성과 도출 및 보완
소요예산 (백만원)	-	20	20	20	20

세부추진과제 2

마음멘토 체험 프로그램

■ 목적

- 청소년기 시기 은둔 성향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상황을 미연에 방지

■ 대상

- 도내 (은둔 성향) 청소년, 전남지역 소재 재학 중인 대학생

■ 추진배경

-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성 회복에 중점을 둔 ‘소통’을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지역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강점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고립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기 시기 은둔 성향을 조기 발견하고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 성인기 이전 사회적 고립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성 발달 기회를 재정적으로 지원 필요
- 전라남도 대표 관광상품(서킷, 승마, 골프, 해양스포츠 등)을 활용하고 관내 대학생이 함께 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제안

■ 추진내용

- (사업개요) 사회적 고립 혹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에 있어 도내 관광자원 및 대학생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대상발굴) 도내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협력으로 내담자 대상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자원활용)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이를 모티브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그리고 발굴된 대상 1~2명과 대학생 1인을 매칭한 소규모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 교육지원청 협조, 관내 대학의 교수학습개발부서(교육 혁신처 등) 협조
- (지원내용) 도내 교육지원청 Wee센터를 통해 참여대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도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운영방안) 소규모 형태(1:1 혹은 1:2)의 체험활동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Wee센터 협력으로 상담사를 통한 참여대상 청소년을 발굴, 도내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또는 봉사 활동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참여 대학생 모집
 -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비 무료 지원
 - (상담사) 참여대상 청소년을 발굴한 상담사에 인센티브 제공
 - (대학생) 참여자에 참여수당 지급 또는 학내 비교과프로그램(혹은 봉사활동프로그램) 개설 후 이수 실적 제공
- (사업예산) 프로그램개발비, 체험활동비, 상담사 인센티브, 기관운영비 등

〈주요 활동(안)〉

- (승마체험) 영광군, 구례군 등 학생승마체험 및 신안군 해변승마체험* 연계
 - * 신안군관광협의회 운영
- (서킷체험) 영암군 서킷체험 프로그램 연계
- (해양스포츠) 무안군 해양스포츠 액티비티투어 프로그램 연계

■ 기대효과

- 성인기 이전 사회적 고립 성향을 조기 파악하여 사회성 발달을 지원
-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홍보 효과 기대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및 운영 계획 수립	참여자 확보 청소년 10명 대학생 5명	참여자 확보 청소년 10명 대학생 5명	참여자 확보 청소년 10명 대학생 5명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세부추진과제 3

마음나눔 프로그램

■ 목적

- 은둔 상황 극복 과정을 이웃과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은둔 상황 극복에 도움

■ 대상

- 도내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회성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경험한 자들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임
- 은둔 경험의 공유 활동을 통해 동기 부여에 의한 자연스러운 사회성 회복을 유도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은둔의 계기, 경험 등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둔 소모임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민의 사회성 회복을 위하여 은둔 상황을 극복한 자의 경험담을 발굴, 공유하여 마음의 치유를 유도

■ 추진내용

- (사업개요) 전국의 은둔 상황을 극복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조모임 운영 지원
- (대상발굴) 전국 단위로 은둔형 외톨이 극복 대상 발굴
- (리더발굴) 자조모임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발굴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
- (지원내용) 은둔을 극복한 대상을 섭외, 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경험 공유를 통한 치유를 유도할 수 있는 자조모임 운영 사업비 지원
- (운영방안 a) 소규모 형태의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을 운영할 인건비, 공간 운영비 등 지원

- (운영방안 b) 사회적 활동을 꺼려하는 은둔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자조모임을 운영할 인건비 등 지원

* 모든 모임 참가자들은 가면, 가명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치유와 같은 성과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참가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은둔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웃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은둔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및 운영 계획 수립	모임발굴 2건 대면모임 3회 모임 6회/연	모임발굴 2건 대면모임 3회 모임 6회/연	모임발굴 2건 대면모임 3회 모임 6회/연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세부추진과제 4

소외회복 콘텐츠 제작사업

■ 목적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민을 대상으로 고립을 극복한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사회성 회복을 지원

■ 대상

- 도내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도민, 즉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은둔상황을 탈피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로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활동은 활발할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을 활용한 사업 고안

■ 추진내용

- 은둔 상황을 극복한 자를 발굴하여 해당 사례를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
 - (콘텐츠 종류) VOD, 카드뉴스, 게임 등
 - (콘텐츠 내용) 은둔의 경험 및 극복사례와 연락처 등

■ 지원내용

- (지원방법) 민간기관 및 단체 보조사업
- (지원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배포 가능하도록 은둔 상황을 극복한 사례를 주요 콘텐츠로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VOD, 카드뉴스, 게임 등)로 제작 후 유관기관 등에 배포
 - (수행기관) 관련 분야 사업수행 경험이 있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이력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
 - (대상섭외)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은둔 상황을 극복한 자 섭외, 가면 또는 변장을 허용하여 콘텐츠 제작에 참여 요청

- (자료제작) VOD, 카드뉴스, 게임 등 온라인 상 널리 배포 가능한 콘텐츠 아이디어 포함 가능

■ 기대효과

- 도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를 대상으로 정책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도민의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면서 도내 지원정책 홍보 가능

■ 연도별 추진내용 (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콘텐츠제작 3식	콘텐츠배포 10건	콘텐츠배포 10건	콘텐츠배포 10건
소요예산 (백만원)	-	300	400	400	400

[사례] 상처 입은 치유자 과정

- (주관기관) 민간 자율 소모임 등
- (운영목적) 자기치유와 성장과정에 대해 이웃에게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치유를 돕는 지도자를 양성
 - ‘상처 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 Henri Nouwen; 최원준 역, 2022)’라는 서적의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참여자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기법을 공유
- (운영방법) 1박2일 캠프 형태, 7명 이내
- (프로그램) 애니어그램, 명상, 자서전쓰기 등

* 자료: 블로그(<https://larinari.tistory.com/3312>, '23. 6. 14 검색) 내용 재구성

세부추진과제 5

소외해방 정보공유 프로그램

■ 목적

- 은둔형 외톨이를 극복한 성공자를 중심으로 강연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의 가족에게 극복 정보공유와 조기 예방의 기회 제공

■ 대상

- 은둔형 외톨이, 그의 가족, 초·중·고, 대학교, 각 기관과 단체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와 그의 가족에게 은둔형 외톨이 극복 정보공유와 조기에방을 위하여 은둔 극복자 강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경험공유) 은둔형 외톨이 극복 경험을 강연을 통해 공유하도록 함
- (심적안정) 은둔형 외톨이 강연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극복 의지를 고취하게 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하도록 함
- (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가족모임, 자조모임, 그리고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등과 협의를 통해 강연 시간 확보

■ 지원내용

- 시·도별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를 발굴하여 일정 교육을 통해 강사로 활동하게 함
 - 은둔형 외톨이 극복 강사 활동 관련 강연자료 제공, 강연 활동 강사비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의 경험 공유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게 극복의지를 갖게 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할 수 있음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극복 강사 발굴	은둔형 외톨이 지원강사 교육 및 활동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강사 교육 및 활동지원	은둔형 외톨이 극복 강사지원 프로그램보완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세부추진과제 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멘토링 프로그램

■ 목적

- 학년별, 각반별, 대학별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관계 형성을 통해 외톨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

■ 대상

- 도내 은둔형 외톨이, 각급 학교

■ 추진배경

-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
- 유사한 환경에 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 필요

■ 추진내용

- (가치공유) 또래집단별 가치공유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
- (심적안정) 은둔형 외톨이가 또래들을 통해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접하고 자신의 문제를 나눌 친구 형성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함
- (협력체계) 각 초·중·고, 대학교 협조로 프로그램 운영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멘토링 우수자 발굴·시상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와 가장 가까운 또래와의 멘토링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은둔형 외톨이 극복에 필요한 협력자를 육성할 수 있음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 발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프로그램 보완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세부추진과제 7

은둔 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대상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활동가로 양성

■ 대상

- 전남 도내 모든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 마련 필요,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
- 전라남도에 있는 활동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활동 자신감을 고취로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내용

- (경험공유) 동일 프로그램 참여로 공감대 형성과 은둔형 외톨이 극복 의지 형성
- (심적안정) 은둔형 외톨이들만의 공간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과 극복 협력자 의지감 고취
- (협력체계) 은둔 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극복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지원내용

- 전남권역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남 서킷, 승마, 영산강 해양스포츠 등을 활용한 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가 동일한 활동 프로그램 참여로 공감대 형성과 은둔형 외톨이 극복에 자신감을 고취하여 사회적 활동가로 육성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은둔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보완 및 지원
소요예산 (백만원)	-	-	30	30	30

세부추진과제 8
이웃발굴 시민공감 프로그램
■ 목적

- 은둔 특성을 보이는 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하여 은둔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하여 도민 대상 정보전달

■ 대상

- 모든 시민(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와의 재회 가능성을 높일 정책은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지역의 사회서비스 부문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전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은둔의 특징 및 지원 방안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에 전 도민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 특징, 사례, 발굴 및 지원의 중요성 안내
 -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과 현황,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 유관기관 및 관련 정책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 도민 대상 홍보사업 실시
 -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견을 위하여 대상의 유형 및 특성과 도움 방법 안내 및 교육 (초·중·고 및 대학 안내자료 배포 등)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발굴대상 안내
 - (대상: 청소년) 초·중·고 및 보습학원 장기결석자
 - (대상: 성인) 대학 내 중도 탈락자 중심 적극적 원인 파악 요청, 주위에서 취업·경제적 실패로 인해 연락이 두절 된 경우 등
- (정책안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 은둔형 외톨이 정보공유 방법 안내
 - (공공)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 (민간) 시민단체, 병원 등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전문기관 보조사업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특징 및 지원 방법에 관한 매뉴얼 제작, 지침 개발, 홍보비 지원 ② 은둔형 외톨이 발굴, 타 기관 및 사업으로의 연계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운영방안)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비' 및 '은둔형 외톨이 발굴 지원 프로젝트' 운영사업비 지급
 - (홍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요성 및 정책안내
 - (기관) 발굴 및 타 기관 또는 사업으로의 연계 성공 시 포상금 지원
 - (개인) 발굴 당사자에 포상금 지급

■ 기대효과

- 전 국민 대상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 촉구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및 선정	발굴 15명 사업연계 10명	발굴 15명 사업연계 10명	발굴 15명 사업연계 10명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사례] 사회적기업이 주관한 은둔·고립 청년 대상 지원사업

- (주관기관) 사회적기업 K2 인터내셔널코리아*
- (운영목적) 은둔·고립청년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지원
- (운영방법) 5단계 자립 지원(충전기-생활기술-직업기술-취업/자립-Pay it forward자립 (지원받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의 전환))
- (프로그램) 공동생활, 직업훈련, 해외연수(한일청년포럼 등)
- (연계기관) 청년 지원기관들, 해당 지역 기초 지자체, 대학 등
- (운영성과) ① (네트워크 결성) K2코리아의 부모모임 → 부모교류회 독립 → 한국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결성 →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결성
 ② (은둔청년 재사회화) '은둔고수' 프로그램 운영, 은둔 경험 보유한 청년들이 또 다른 은둔 청년들을 돕는 멘토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 20명 배출
 ③ (사회적 이슈화)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 확대 및 지자체 주관 관련 조례 제정 등 성과, 한일 교류를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 지속 추진

* 출처: K2 인터내셔널코리아 홈페이지(<https://k2-kr.com/>, '23. 6. 9. 검색)

* 주) 코로나19 시기 운영상의 어려움, 재정악화 등으로 2021년 말 폐업 이후, 일부 구성원 주도로 단체를 재설립하여 2023년 6월 현재 '안무서운회사' 운영 중

정책 영역 4

거시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거시체계에서는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①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②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③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④지역사회주민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⑤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함

Ⅲ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종합적 지원 플랫폼 구축

세부추진과제 1

사례발굴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

■ 목적

- 지리적 특성상 면적은 넓고 밀도가 낮은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관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22개 시군 기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 부재로 결국 더 많은 은둔형 외톨이를 양성할 우려가 있음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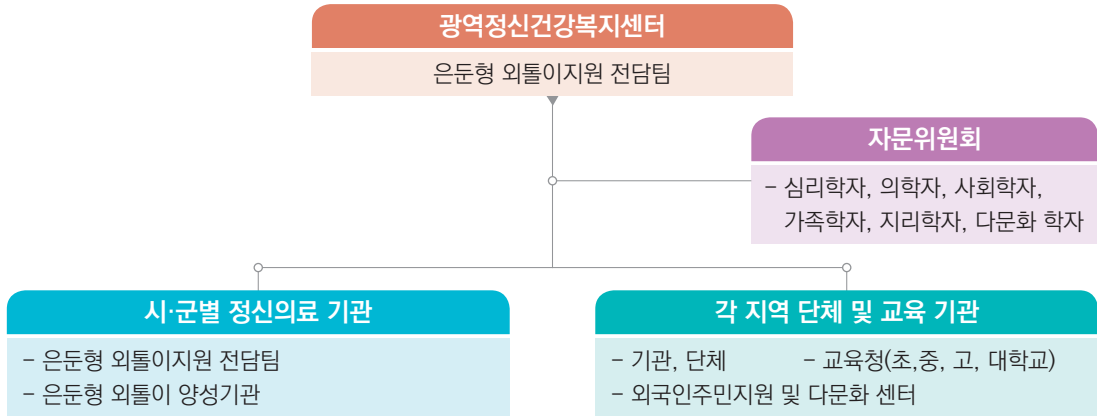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별 정신의료 기관,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 위원회

■ 추진배경

-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곳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전담팀을 두고 시·군별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팀과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양성기관을 두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정신의료 기관과 아울러 각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 교육청(초·중·고·대학), 외국인 주민지원 및 다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은둔형 외톨이 대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협업이 중요함

■ 추진내용

- 거버넌스에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역 일자리지원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참여



[그림 V-3]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버넌스⁸⁾

■ 지원내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문제해결을 위해 심리학자, 의학자, 사회학자, 가족학자, 지리학자, 다문화 학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사례 발굴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담기구 마련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자문 위원단 구성	22개 시군 기반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버넌스 구축	22개 시군 기반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버넌스 운영	22개 시군 기반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거버넌스 운영(계속)
소요예산 (백만원)	-	10	10	10	10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2021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세부추진과제 2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교사지원

■ 목적

- 초·중·고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단기 결석자와 은둔 특성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 은둔 초기에 대처 및 지원

■ 대상

- 초·중·고 교사, 대학교 교수

■ 추진배경

- 초·중·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장단기 결석자와 은둔 특성을 보이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여 은둔 상황 예방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초·중·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장단기 결석자와 은둔형 외톨이 특징, 사례발굴 및 지원의 중요성 안내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발굴대상 안내
 - (청소년) 초·중·고 장단기 결석자 및 은둔형 특성 자
 - (성인) 대학 내 중도 탈락자 중심 적극적 원인 파악 요청
- (정책안내) 초·중·고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정보공유 방법 안내
 - (공공) 초·중·고, 대학교, 경찰서 등
 - (민간)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 등

■ 지원내용

- (방법) 장·단기 결석자 현황 파악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 특성 보유자 발굴 및 상담 지원
- (내용) ① 장단기 결석자 및 은둔형 외톨이 특성자 발굴·지원 ② 은둔형 외톨이 장단기 결석자 축소 시 연계 실적에 대한 개인적 인센티브 지원 ③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은둔형 외톨이 축소 시 각 학교별 인센티브 제공
- (방안)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각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로 운영

■ 기대효과

-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굴과 교사의 상담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속적 감소 기대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장단기 결석자 현황 및 은둔형 외톨이 특성자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각 학년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 메뉴얼 제작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각 학년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 메뉴얼 배포	학년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메뉴얼 보완 및 지원
소요예산 (백만원)	-	-	20	20	20

세부추진과제 3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상담사 발굴·지원
■ 목적

- 각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각 상담사 또는 상담사 자격자 중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따른 일정 교육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상담사로 활동 지원

■ 대상

- 상담사 혹은 상담사 자격 보유자 중,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참여한 자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지원에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상담사 발굴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신속 지원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지역 상담가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지원할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상담을 지원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발굴대상 및 지원 방법
 - (청소년) 초·중·고교 특성별 은둔형 외톨이 이해와 상담기법 발굴 및 지원
 - (성인) 대학생 및 성인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상담기법 발굴 및 지원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 심각성과 은둔형 외톨이 상담 지원에 대한 정책 이해 및 확인
 - 은둔형 외톨이 상담 관련 매뉴얼 개발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지원한 상담자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담활동에 따른 다각도 지원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상담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② 상담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영역 지원 ③ 은둔형 외톨이 상담자 중에 우수 상담사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방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상담사 발굴을 통해 더 신속한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활동가로 양성

■ 기대효과

- 각 지역 내 상담사 발굴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심리적 문제해결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속적 감소 효과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상담사 발굴	지속적 은둔형 외톨이 지원 상담사 발굴 및 교육·상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상담 실시 상담 메뉴얼 제작 및 보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상담성과 확보 및 평가
소요예산 (백만원)	-	-	30	30	30

세부추진과제 4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사회복지사 발굴

■ 목적

- 각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격자 중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따른 일정 교육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사회복지사로 활동 지원

■ 대상

- 각 지역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자 중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지역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지원할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은둔형 외톨이 복지 사업 지원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발굴대상 및 지원 방법 안내
 - (청소년) 초·중·고교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이해와 복지 지원 방법 발굴 및 지원
 - (성인) 대학생 및 성인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이해와 복지 지원 방법 발굴 및 지원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 심각성과 은둔형 외톨이 상담 지원에 대한 정책 이해 및 확인
 - 은둔형 외톨이 복지지원 관련 매뉴얼 개발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지원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복지활동에 따른 다각도 지원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복지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② 상담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영역 지원 ③ 은둔형 외톨이 사회복지사 중에 우수 사회복지사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방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회복지사 발굴을 통해 더 신속한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활동가로 양성

■ 기대효과

- 각 지역 내 사회복지사 발굴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문제해결 지원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속적 감소 효과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회복지사 발굴	지속적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회복지사 발굴 및 교육 복지활동	은둔형 외톨이 지원 복지 실시 복지 메뉴얼 제작 및 보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복지활동성과 확보 및 평가
소요예산 (백만원)	-	-	30	30	30

세부추진과제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구축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

■ 대상

-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경험자,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 등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각 시·군별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로 양성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
- 특히, 새로운 전문 자격을 신설 및 개발하기보다 기존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내에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각 시·군별로 자격자를 모집하여 전문가로 육성함
- (대상안내)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양성과정에 해당되는 자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안내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관한 매뉴얼 제작과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활동 내용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지원과 실무자로서 현장 활동 지원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양성 교육 ②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활동 지원 ③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활동시 법적 보장
- (운영방안) 일정 자격을 갖춘자를 모집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게 함

■ 기대효과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문제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례관리 효과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자 양성(30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자 양성(30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자 양성(30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자 양성(30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무자 양성(30명)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세부추진과제 6

은둔형 외톨이 사후관리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 사후관리 거버넌스 구축

-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담팀을 중심으로 매년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현황 및 지원 성과 확보 및 평가회 실시
- 전라남도는 매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각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자문위원회, 각 기관 및 단체, 교육청 등등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에 따른 문제점 보완 필요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은둔형 외톨이 효과적인 지원 방향과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것
- 전라남도는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대한 우수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인센티브 제공

■ 연구 거버넌스 구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담팀을 두고 그 전담팀 내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원을 두어 은둔형 외톨이 감소를 위한 각종 지원 매뉴얼 제작과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함
- 은둔형 외톨이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연구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으로 하여금 외로움의 측정 도구 개발을 통해 양적평가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개발 추진 및 지원
- 5년마다 각 시·군별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을 발굴 및 보완하도록 함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주제 공모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종)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종)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종)
소요예산 (백만원)	-	-	50	50	50

세부추진과제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성과 홍보 거버넌스

■ 목적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성과 자료집 및 홍보 자료집 발간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따른 정보공유와 모든 도민이 함께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 대상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관련 모든 자료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광범위하여 지원에 따른 인력에 한계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제점 인식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지원 성과자료집 발간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공유할 필요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효과적인 지원 방법 공유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자 및 기관 그리고 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홍보 자료집과 지원 성과자료집 발간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 및 효과적인 지원 방법 공유
 - (공공)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 (민간) 각 기관 및 단체, 모든 도민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은둔형 외톨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홍보 및 지원 성과 자료 발간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②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성과물 제작 지원

- (운영방안) 은둔형 외톨이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홍보물 제작 및 지원 성과자료 확보 및 성과자료 발간
 - (홍보자료) 은둔형 외톨이 지원관련 인식개선 및 은둔형 외톨이 문제 인식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성과자료집) 각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대책 등 성과자료 발간

■ 기대효과

- 전 국민 대상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 촉구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효과 및 성과 증대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소요예산 (백만원)	-	-	30	30	30

Ⅱ 전라남도 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세부추진과제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 목적

- 전라남도의 지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사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추진
- 각 시·군에서도 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각 지역 사회 및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각 시·군에서는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의 정책에 대해 각 지역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각 시·군에서도 역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발굴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함

■ 대상

- 각 시·군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

■ 추진배경

- 각 시·군 홈페이지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상담실 및 자료실 운영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추진내용

- 각 시·군에서는 매년에 1번 정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각 시·군이 지속적이고 더 효과적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문제해결 방안 수립

■ 지원내용

- 각 시군은 지역사회 단체 및 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령별, 유형별 은둔형 외톨이 맞춤형 지원

■ 기대효과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해소 및 지원정책 효과성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각 시·군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 협의회 구성 논의	각 시·군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 협의회 구성 및 역할 논의	각 시·군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별 실적 평가	각 시·군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별 실적 평가
소요예산 (백만원)	-	-	-	20	20

세부추진과제 9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홈페이지 구축

■ 목적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은 사회활동과 대인관계 등의 트라우마의 경험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홈페이지를 개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여 스스로를 이해 하도록 하고 도민의 인식개선에 활용

■ 대상

- 모든 시·군민, 은둔형 외톨이

■ 추진배경

- 시·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은둔의 특징 및 지원 방안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은둔형 외톨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은둔형 외톨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안내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의 다양한 문제점, 은둔 상황을 극복한 사연 등
 - (시·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
 -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자신에 대한 인식개선, 은둔형 외톨이 다양한 극복사례를 통한 극복 의지 형성, 상담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문제를 제시하고 상담 받고 해결책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시·군별 홈페이지에 은둔형 외톨이 관련 링크 게시
- (지원내용) ① 홈페이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내용 탑재 ② 홈페이지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극복사례 탑재를 통해 극복 의지 제고 ③ 은둔형 외톨이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창구를 통해 자신의 문제해결 지원

- (운영방안)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관련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 및 관리
 - (시·군민)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자료 탑재
 -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극복사례를 탑재하여 은둔형 외톨이 극복 자신감 고취
 - (상담창구) 은둔형 외톨이가 상담창구에 올린 내용에 대해 바로바로 응답지원, 상담활동 및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지원자 연결 필요

■ 기대효과

- 전 국민 대상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및 은둔형 외톨이 정보 습득 기회 제공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통합 홈페이지 제작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소요예산 (백만원)	20	5	5	5	5

Ⅲ 수용성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체계 구축

세부추진과제 10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 목적

-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인식 개선

■ 대상

- 초·중·고, 대학생 및 교직원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가족과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2회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인식개선 교육과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다양한 문화 활동을 발굴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비 은둔형 외톨이와 은둔형 외톨이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함
-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 문제점, 공감대 형성, 사례 전달로 극복의지 고취
- (대상안내)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아니라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시킴

- (청소년) 초·중·고 및 대학생들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는 나와 하나임을 인식시켜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 형성
- (교직원) 함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은둔형 외톨이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도 동등한 전남도민임을 인식하게 함
 - (학교)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적극 지원
 - (교직원)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동참으로 지원
 - (학생)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극복 자신감 고취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은둔형 외톨이 지원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지원 강사 육성 ② 초·중·고 및 대학교에 프로그램 참여 정책화 ③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운영성과 도출 및 평가
- (운영방안) 지역사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강사 발굴지원 및 강사 활동비 지원
 - (강의 자료) 강의 자료 발굴 및 제작 지원
 - (강사) 은둔형 외톨이 강사 활동비 지원
 - (각 학교) 학사 일정에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포함

■ 기대효과

- 초·중·고 및 대학생, 교직원들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극복의지 고취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강사 육성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강사 육성 및 강사지원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강사 육성 및 강사지원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강사 육성 및 강사지원
소요예산 (백만원)	-	20	20	20	20

Ⅳ 지역사회 주민 활동 참여 거버넌스 구축

세부추진과제 11

마을지킴이 프로그램

연계 2023 고독사 시행계획

■ 목적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

■ 대상

- 모든 시민(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활동단체 및 활동가 중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자의 역할수행 기회 제공
- 특히 지역사회 주민은 은둔형 외톨이 가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가족이 가진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경험에서 벗어난 사람을 멘토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을 비롯하여 초·중·고·대학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 특히 문제해결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담당자에게 속히 이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지역사회 지원자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실시할 필요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마련한 것도 필요함

- 지역사회 활동가를 중심으로 1인가구, 독거노인, 외톨이 등과 같은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문제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 알려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예방 효과 제고

■ 추진내용

- (정보전달)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각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사회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지킴이’ 역할의 중요성 확인 및 지원자 발굴
- (대상안내) 덕망이 있고 오랜 기간 사회에 헌신해온 활동가로 인정받는 자 중에 지원자를 동네 지킴이로 발굴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
- (정책안내) 사회 활동가 중에 일정 교육을 통해 동네 지킴이로 임명하고 활동비를 지원함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은둔형 외톨이 보조활동가 지원비
- (지원내용) ① 사회에서 인정받는 활동가 중에 은둔형 외톨이 활동가 교육 지원
② 교육 후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③ ‘마을지킴이’ 중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 (운영방안)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관심이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 중에 소정의 교육을 통해 ‘마을지킴이’ 활동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지원활동

■ 기대효과

- 사회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여 활동하게 된다면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발굴 그리고 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음
-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례관리 효과 제고

■ 연도별 추진내용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내용	마을지킴이 발굴 및 교육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및 프로그램 보완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및 프로그램 보완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및 프로그램 보완
소요예산 (백만원)	5	10	20	30	30

Ⅴ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자원 조달 방안 마련

세부추진과제 12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글로벌 아너스클럽 운영사업

■ 목적

- 각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단체, 개인 발굴 및 동기 부여

■ 대상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참여한 기관, 단체, 각 개인

■ 추진배경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재원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자 중에 우수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더 많은 기관, 단체, 개인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재원은 전라남도도와 전라남도 시군이 일정 부분 조달하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자원 마련 방안 필요
- 한편, 관련 예산이 부족하며, 정책 대상자가 소수인 상황이므로 1인가구(독거) 및 고독사 등 관련 정책과 통합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유연한 예산 사용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기업체 및 도민을 중심으로 한 기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가 예산의 발굴도 요구됨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재원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각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자 중에 우수자를 발굴 시상을 통해 더 많은 기관, 단체, 개인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 추진내용

- (정보전달) 각 기관, 단체, 개인들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우수자 발굴 후 표상
- (대상안내) 각 기관, 단체, 개인별 지원 능력에 따라 표상자 선발

- (정책안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원 조달에 모든 도민이 참여할 기회 제공 및 우수자 시상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과 각 시·군 은둔형 외톨이 전담팀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우수 기관, 단체, 개인 선발 공고 ② 은둔형 외톨이 지원 우수 기관, 단체, 개인 선발 시상 및 인센티브 지원 ③ 지속적인 우수자 발굴로 더 많은 지원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 촉구 및 자원 지원자 발굴

■ 연도별 추진내용(2029년 이후 시행 장기과제)

구 분	연도별 사업계획				
	2029	2030	2031	2032	2033
추진내용	은둔형 외톨이 자원 지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은둔형 외톨이 자원 지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은둔형 외톨이 자원 지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은둔형 외톨이 자원 지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은둔형 외톨이 자원 지원 우수자 발굴 및 시상
소요예산 (백만원)	20	20	20	20	20

제6장

‘24년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사업 1. 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1-2)

사업 2. 은둔서포터즈 양성(1-5)

사업 3. 사례발굴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4-1)

사업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구축(4-5)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홈페이지 구축(4-9)

사업 6. 마을지킴이 프로그램(4-1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6장 '24년 전남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

사업 1. 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 1-2

■ 추진배경

- 심층면접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상담임
-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은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으로 진입 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

■ '24년 추진개요

- 은둔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스스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의사를 표명한 은둔형 외톨이 전원에게 전문 상담 지원
 - (상담횟수) 횟수 제한 없음(은둔 문제 해소 시까지 지원)
 - (상담방법)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 병행
 - ※ 은둔형 외톨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초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이후 대면상담 유도
 - (상담단계) 개별상담, 심적안정, 맞춤지원, 사후관리 순
- 개인 상담 중 상담 포기 또는 거부 의사 표현 시 방안
 - (상담포기) 상담에 언제든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거부의사) 가족 등을 통해 상담 이외의 다른 방안 적용

■ '24년 소요예산: 4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 지역 등 복지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상담 확대
- 은둔형 외톨이 주변의 가족 및 동거인 상담 확대

사업 2. 은둔서포터즈 양성 1-5

■ 추진배경

-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경험 인식으로 인해 소통이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에게 일반적 접근 방식보다 은둔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은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지원하여 경험의 공감대를 극대화
- 과거 은둔 문제를 경험하였다가 해소한 경험이 있는 극복 경험자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공감하고 정보공유

■ '24년 추진개요

- 은둔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극복 기간이 1년 이상인 은둔 극복자를 선발하여 전라남도 은둔서포터즈로 양성
 - (모집방법) 은둔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 (선발방법) 전문상담사에 의한 적정 대상 참여자 선발
 - (활동내용) 은둔형 외톨이와 1대 1 또는 1대 다(多) 매칭
 - (지원사항) 프로그램 운영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
 - ※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기타사항) 지역 내 은둔 극복 및 해소자의 사회복귀 효과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 '24년 소요예산: 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은둔 서포터즈 양성프로그램 확대
- 권역별 은둔 서포터즈 활동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 3. 사례발굴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 4-1

■ 추진배경

- 지리적 특성상 면적은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전라남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관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필요
- 22개 시군을 기반으로 한 실효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24년 추진개요

- 도내에 은둔 문제를 보유한 모든 도민을 발굴하고 은둔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중심 거버넌스 구축
 - (구축방법)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보건소, 외국인주민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 유도
 - (주요내용)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사례관리 협력
 - (지원사항) 우수 발굴 및 관리 사례에 대한 시상 필요

■ '24년 소요예산: 비예산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밀접 유관기관 참여 확대: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보건소 등
- (2단계) 간접 유관기관 참여 확대: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센터, 전남지역 일자리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 및 다문화센터 등

사업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구축 4-5

■ 추진배경

-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상 은둔형 외톨이 발굴과 사례관리의 한계가 있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새로운 전문 자격을 신설하기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로 양성

■ '24년 추진개요

- 도내에 은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은둔 특성 및 대응 전문성을 교육하여 전문가로 양성
 - (지원방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교육과정 지원과 실무자로서 현장 활동 지원
 - (지원내용)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양성 교육,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활동 지원,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 활동시 법적 보장
 - (운영방안)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함

■ '24년 소요예산: 비예산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고독사 및 기타 복지 전문가 양성과정과 결합하여 추진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홈페이지 구축 4-9

■ 추진배경

- 은둔 문제의 심각성과 은둔 해소 정책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업 홍보
- 도내 은둔 고위험군 및 잠재군을 발굴하거나 은둔형 외톨이 자신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 필요

■ '24년 추진개요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안내 및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정책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방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군 단위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보 게시와 정책 및 사업 홍보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관련 홍보물 탑재 ② 은둔 문제 상담 및 해소·극복 사례를 공유 ③ 은둔형 외톨이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 마련
 - (운영방안) 은둔형 외톨이 관련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필요

■ '24년 소요예산: 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고독사 및 기타 복지 전문가 양성과정과 결합하여 추진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6. 마을지킴이 프로그램 4-11

■ 추진배경

-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상 발굴 및 예방 효과 제고
- 지역사회의 활동단체 및 활동가 중에서 자발적 지원자를 모집하고 마을지킴이로 위촉 및 활동 지원

■ '24년 추진개요

- 지역사회 내의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례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 참여자의 활동 지원
 - (주요역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제공
 - (운영방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중에서 '마을지킴이' 활동 지원자 선발 및 활동 지원
 - (지원내용) ① 은둔형 외톨이 관련 교육 지원 ② '마을지킴이' 활동비 지원 ③ 우수자 사례발굴에 대한 시상

■ '24년 소요예산: 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별 특수성을 반영한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모델 구축
- 시군별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선정 및 확산

제7장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제7장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단위: 백만원)

영역	번호	세부 추진과제	소요예산					비고
			2024 (시범사업)	2025	2026	2027	2028	
미시 체계	가-1	은둔예방 프로그램	-	-	50	50	50	
	가-2	고립극복 상담지원사업	40	50	50	50	50	
	가-3	훈련보조상담 프로그램	-	-	30	30	30	
	가-4	느린 일 경험 프로그램	-	-	-	50	50	
	가-5	은둔서포터즈 양성사업	10	30	30	30	30	
	가-6	은둔지원 실무자 연수프로그램	-	-	50	30	30	
	가-7	이웃돌봄미 양성사업						장기과제
	가-8	공동주거 조성 프로그램						장기과제
	가-9	마을기친 조성사업						장기과제
	가-10	사랑방 조성사업						장기과제
	가-11	건강검진 치료지원사업						장기과제
중시 체계	나-1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성	-	10	10	10	10	
	나-2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성	50	50	50	50	50	
	나-3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사례발굴 및 관리	10	30	50	50	50	
외 체계	다-1	가족공감 프로그램	-	20	20	20	20	
	다-2	마음멘토 체험 프로그램	-	-	20	20	20	
	다-3	마음나눔 프로그램	-	-	20	20	20	
	다-4	소외회복 콘텐츠 제작사업						장기과제
	다-5	소외해방 정보공유 프로그램	-	-	20	20	20	
	다-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1 멘토링 프로그램	-	-	20	20	20	
	다-7	은둔 극복 대안활동 프로그램	-	-	30	30	30	
	다-8	이웃발굴 시민공감 프로그램	-	-	20	20	20	
거시 체계	라-1	사례발굴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	-	10	10	10	10	
	라-2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교사지원	-	-	20	20	20	
	라-3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상담사 발굴·지원	-	-	30	30	30	
	라-4	은둔형 외톨이 치유 거버넌스 구축: 사회복지사 발굴	-	-	30	30	30	
	라-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 양성 거버넌스 구축						비예산
	라-6	은둔형 외톨이 사후관리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	-	50	50	50	
	라-7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성과 홍보 거버넌스	-	-	30	30	30	
	라-8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	-	-	20	20	
	라-9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홈페이지 구축	20	5	5	5	5	
	라-10	너나 우리 하나 프로그램	-	20	20	20	20	
	라-11	마을지킴이 프로그램	5	10	20	30	30	
	라-12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글로벌 아너스클럽 운영사업						장기과제

참고 문헌

- 김성아(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2022(3), 74-86.
- 김도형·박승규(2021). **전라남도 은둔형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욱(2019).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김서연·박희서(2016).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10), 149-156.
- 박주홍·손지현·서두산(2022).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복지개발원.
- 이순성·박지선(2022). **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 현황과 시사점**. 서울시복지재단.
- 임형문·김석웅·박순영·이세라·최상화·김영지·이찬미·장경철·장혜진·박유경·이수아(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정근하·이상엽·노영희(2021).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들의 활동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방지 방안 연구. **한국 비교정부학보**, 25(2), 141-165.
- 제세령·최태영·원근화·봉수현(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1(2), 80-89.
- 조영마·김동민(2012). 은둔형 인터넷 중독 청소년과의 상담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자 접근방식과 내담자 반응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385-416.
- (주)피애프로(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Stavropoulos, V. Anderson, E. E., Beard, C., Latifi, M. Q., Kuss, D., & Griffiths, M. (2019). A preliminary cross-cultural study of Hikikomori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The moderating effects of game-playing time and living with parents. **Addictive Behaviors Reports**, 9, 100137.
- Stip, E., Thibault, A., Beauchamp-Chatel, A., & Kisely, S. (2016). Internet addiction, hikikomori syndrome, and the prodromal phase of psychosis. **Frontiers in psychiatry**, 7, 6.
- Tateno, M., Teo, A. R., Ukai, W., Kanazawa, J., Katsuki, R., Kubo, H., & Kato, T. A. (2019). Internet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and Hikikomori trait in Japanese young adult: social isolation and social network. **Frontiers in psychiatry**, 10, 455.
- Kato, T. A., Kanba, S., & Teo, A. R. (2020). Defining pathological social withdrawal: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hikikomori. **World Psychiatry**, 19(1), 116-117.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본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은 다음과 같은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책임

김주경 (세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박대현 (세한대학교 교수)

정두배 (세한대학교 교수)

최승이 (세한대학교 교수)

조민일 (다정노인재가복지센터)

연구보조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4~'28)

발행일 | 2023년 7월

발행처 | 전라남도

발행인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 화 | 061-286-5741 **Fax** | 061-286-4776

www.jeonnam.go.kr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